

흑사병 이후 최악의 인구 감소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출산율이나 인구학적 추세가 아닌 오로지 추수하시는 주님께 있다

1300년대, 흑사병으로 인해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한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앞으로 1세기 동안 대규모의 인구 감소를 예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인구가 향후 수십 년 사이, 대략 2053년부터 2070년대 후반 또는 2080년대까지 정점에 도달하고 그 후 본격적인 감소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잠깐! 여러분은 아마도 당장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아니, 전문가들이 인구 과잉에 대해 경고한 게 고작해야 50년 전 아닌가요? 게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나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피터 자이한이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에서 설명했듯, 오늘날 인구 증가는 부분적으로 수명 연장 때문이다. 낮아진 사망률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압도할 정도로 인구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만 해당한다. 결국, 수명이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고 모든 국가가 인구가 늘어나지만 아이들은 거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어제 만년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오늘에는 모자란 젊은 근로자로 이어지고, 내일에는 부족한 성숙한 근로자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로 그 날이 왔다.

인구 감소의 시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최근 에세이 “The Age of Depopulation(인구 감소의 시대)”는 1960년대에 비교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진 오늘날 세계 출산율의 놀라운 붕괴를 기록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회가 만연하고 무한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그는 썼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2021년에 인구 감소로 접어들었고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도 현재 대체 불가능한 출산율에 직면했다. 이란과 튀르키예에 같이 한때 문화적 또는 종교적 전통으로 인해 인구 문제에 있어서만은 면적이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비슷한 궤적을 걷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지 않는 한,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에서 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추세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

율 감소의 배후가 무엇일까? 에버슈타트는 “가족 구성의 혁명”을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결혼에서의 도피’, 거기에 비혼 동거의 확산 ... 그리고 독립적인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 다시 말해 일인 가정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문화적 변화는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더 작고 더 취약한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이 시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성, 자아실현, 그리고 편의성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고 대가족은 문화적 이질감의 상징이 된다.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를 중시하는 종교적 신념이 인구 감소라는 조류를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족 구성과 종교적 참여가 반직관적인 방식으로 얽혀 있

기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속주의가 가족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도발적인 명제를 메리 에버슈타트가 쓴 How the West Really Lost God(서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에서 참조하라.)

늙은이의 시대

세계의 인구 감소는 일련의 사회적 결과를 촉발할 것이다. 에버슈타트에 따르면 출산율의 붕괴는 “근로자, 저축자, 납세자, 임차인, 주택 구매자, 기업가, 혁신가, 발명가 ... 그리고 유권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게다가 2050년에 이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80세 이상의 인구가 어린이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3면으로 계속)



기쁨과 영원을 담아내는 디자이너

고독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라

“아귀의 못생김에 대해 신학적으로 서술하라.” 20년 전 담당 교수가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출제한 여덟 문제 중 하나였다. 200여 종에 달하는 아귀와 물고기들은 기괴하며 거대한 입과 흉측하게 생긴 얼굴 및 피부 탓에 한국에서는 ‘아귀’로 이름 붙여졌다. 이런 흉측한 창조물에 대해 신학적으로 논하라는 것은, 미학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끄집어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보이라는 뜻이었다.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지식의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못생긴 것을 창조하신 이유, 즉 악의 문제와 연결되는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보편적이며 신학적 사유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론은, 아귀가 심해에서 초룡불을 달고 사냥을

하는 탁월한 기능, 혐오스런 색깔과 모양의 껍데기 속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몸의 대칭과 비례 등을 들어 생명체의 ‘디자인적 요소’를 언급해 창조질서를 논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디자인하셨다. 한때 기독교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던 무신론자 안토니 플루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온 지구와 그 자연의 법칙이 ‘마치 누군가가 인간이 와서 살도록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공허와 혼돈 속에 부여된 질서와 형태에서 시작했고,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본능대로 그가 주신 재료와 질서 안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멈추지 않는다.

(9면으로 계속)

2면

시 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조승철 목사

14면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제임스 구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소: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024 성탄축하예배 및 제53회기 이·취임식

하나 되게 하소서!

Let us become one!

에베소서 4:3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제53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새로운 임원들은 '하나 되게 하소서'(엡 4:3)를 표어로 삼고 섬기려고 하오니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성탄축하예배 및 53회기 취임식과 52회기 이임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53회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앞날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대표의장)

일시: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후러성제일교회 (김정호목사 시무)
38-24 149 St. Flushing, NY 11354

문의: 총무 박현영 목사 (917) 370-5954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한준희 목사 | 총무 박현영 목사 | 서기 김인식 목사

시론

선거결과가 싫으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로 보이지 않게 선거 이후에 펼쳐질 시대를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각료들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걱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예 미국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행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료 후보로 추천된 분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며 백신 거부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국가정보국 국장에 추천된 틸시 캐버드,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추천된 맷 게이즈 후보자들을 향한 걱정스러운 여론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걱정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선출자가 대통령직을 맡아 국가를 이끌 앞으로의 4년을 아예 미국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현실도피(Escape from Reality)'라는 이름으로 나온 1년짜리 크루즈 상품이 있습니다. 당장 선거 후에 생긴 열부터 식히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상품으로는 2년짜리로 이름하여 '중간 선거(Mid-Term Selection)'입니다. 배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다 2년 뒤 중간선거가 있을 때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미국정치를 생각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2년 짜리 상품에 이어 3년짜리 상품, '집 빼곤 모든 곳(Anywhere but Home)'이라는 상품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비싸고 기간도 긴 상품은 이름하여 '도약(Skip Forward)'으로 4년 동안 140개국 425 항구를 방문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여행상품의 가격은 가장 낮은 급이 1년에 미화로 4만 불부터 시작되며 4년 동안 여행을 하려면 16만 불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16만 불이 있으면 트럼프 당선자를 보지않고 세계각국으로 여행하다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조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갖기를 원하면 1년에 256,000불로 혼자만 사용하는 객실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내용들을 생각없이 듣다 보면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심지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4년 동안 해외에서 여행하며 보내는 대신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품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않는 대상을 피하는 것보다 그 대상을 위해 기도 하다보면 긍휼과 사랑과 올바른 정의의 마음이 더 깊게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했던 이제 남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취한 선택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아닐런지요!

살롬.

hankschoi@gmail.com

더 나은 신학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바보가 되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나은 신학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타임(Time)이 선정한 현존하는 사상이 된 명 중 한 사람을 아는 행운아다. 그는 이십 년 넘게 나의 멘토다. 그는 또는 풋볼 팀 캔자스 치프스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그는 내가 깊은 의심의 계절을 지나는 중에는 현자로서, 그리고 심각한 불안의 발작을 일으킬 때에는 친구로서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이름은 J. P. 모어랜드이고, 그는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정기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이올라 대학교의 탈봇 신학 대학에 있는 우리 두 사람의 사무실은 1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수시로 만난다. 타임이 선정한 것은 사상이가 아니라 사실상 현존하는 무감각한 평정이 된 명이고 J. P.가 거기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가 정기적으로 나를 바보라고 상기시키는 게 왜 내게 축복인지 말해야겠다. 그 이유는 바로 G. K. 체스터턴이 했던 이 말에 다 들어있다. "천사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에 날 수 있다. ... 하지만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탄은 아래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타락했다."

더 나은 신학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덜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대신에 하나님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신학자에 대한 좋은 정의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보인지를 깨닫고 어리석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줄이기 위해서라고 최대한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 (어쩌면 신학 컨퍼런스는 바보 컨벤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놀랍게도 겨우 스무 살에 했던 설교에서 찰스 스펔전이 바로 이 점을 언급했다. "신학은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에 묻혀 버립니다.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그 무한함에 빠져 버립니다. ... 그 어떤 주제로 목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큼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가 지닌 엄청난 크기와 무한성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서 독특함을 가진다.

교만함을 미덕으로 뻘뻘스럽게 마케팅하는 시대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차마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한히 흥미롭고, 신하고, 강력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숙고함으로써 교만함이 산산이 조각나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학자라면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엄숙한 과제에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좋아하시지만,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찰스 옥타비우스 부스의 경고를 상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바보라고 묘사한 사람(고전 4:10)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약함과 모욕에도 만족한다"(고후 12:10)고 말한 신학자이자 사도였던 바울이다. 그는 "자신의 눈에 결코 지혜롭지 말라"(롬 12:16)고 말했다. 훌륭한 신학자라면 영원의 저편에 서있는 우리가 보는 것은 고작해야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고전 13:12)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정도의 겸손은 가지고 있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대로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의 바다"가 하나님이라면, 신학자가 제공하는 것은 고작해야 그 무한한 바다에서 떨어지는 단지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그 한 방울이 아무리 소중한고, 영혼을 적셔 주고, 또 생명을 준다고 해도 한 방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 나은 신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팁이 있다.

1. 당신의 모든 단점까지 아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라.

당신의 지나친 진지함(self-seriousness)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취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강사 이훈구 장로 약력>

* 목회학 석사 및 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 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적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 c. 면접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제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을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통진 목사

흑사병 이후 최악의 인구 감소 앞에서

〈1면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세계는 고령화 세상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 걸친 저출산으로의 행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초저출산으로의 행진은 노인이 젊은이보다 많아지는 시대, 꼭대기가 더 무거워 인구 피라미드를 만들어낸다. 다가올 세대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표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의 대열이 팽창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인구 감소와 교회

이런 변화가 세계 교회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1.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제4차 로잔 대회 직전에 발표된 최근의 대위임령 보고서는 노령 인구가 제기하는 광범위한 요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적시하고 있다. 나이는 신자들을 단순히 보살핌과 관심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함께 건강하게 사역하는 협력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세대 가족의 지원에서부터 고립과 외로움의 추세에 맞서는 것, 노인을 위한 영적 형성과 사역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우리는 나

이든 신자들과 함께 사역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인구감소의 위기는 결혼 생활의 강화, 가족 지원, 자녀 출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요구한다. 자율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희생적인 사랑, 연약적 헌신, 세대를 이어가는 신실함의 아름다움이다. 서구에서 “무종교인(nones)”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Pew Research Forum은 전 세계적으로 2060년에 이르면 오늘날보다 세 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세속적” 사람들의 비중이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이유는 주로 인구 통계적 추세 때문이다. 에릭 카우프만은 Shall the Religious Inherit the Earth?(종교인이 지구를 물려받을 것인가?)에서 미래의 주인은 세속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중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구의 변화 추세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로스 다푸셋(Ross Douthat)은 최소한 출산율을 사망률에 맞게 유지하거나 그보다 높이는 국가가 출산율이 급락하는 국가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출산율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들 내에서도,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지역은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이질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역동적인 미국의 주와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전통과 이념을 예측하고 싶은가? 그럼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장소와 집단을 찾으라.”
3. 인구감소라는 위기 시대는 독신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역과 관심을 요구한다.
더 많은 독신 가구와 점점 줄어드는 대가족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고립된 세상에서 우정을 제공하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교회가 펼치는 사역은 독신자의 존재를 간과하지 않고 당연히 함께 가는 존재로 가정해야 한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등 시민이 아니다).
당신이 2번과 3번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낀다면, 그건 당연하다. (일시적으로든 평생이든) 독신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리스도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장려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명확하지도 않다. 양자택일을 함으로서 긴장을 해소하려는 건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만나는 현실이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통합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결혼과 가족만을 유일한 게 신실한 삶의 방식으로 간

주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노령의 독신 노인이라는 새롭게 전개되는 선교 현장의 큰 부분에서 제외될 것이다. 동시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결혼과 가족생활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표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인구감소라는 추세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추세에 합류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각기 다른 열정, 은사, 소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처해있다.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 앞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스스로 절뚝거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앞을 바라보자

우리 앞에 놓인 인구학적 도전은 엄청나다. 섬기도록 부름 받은 문화를 꾸짖는 듯이 인구 감소의 이유를 비난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과거에도 엄청난 변화 속에서 묵묵하게 전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희망은 출산율이나 인구학적 추세가 아닌 오로지 추수하시는 주님께 있다. 주님이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는 것만이 인구가 감소하는 세상에서 활기차고 회복력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존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상으로 파송해야 한다.

더 나은 신학자가 되고 싶은가?

〈2면에서 계속〉
3. 매일 자신에게 반자존심 복음을 전파하라.
이샤야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히브리어로 “생리혈 닦는 걸레”를 의미하는 idim bagad(사 64:6)에 비유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쓰레기, 폐기물, 대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skybala”로 묘사했다(빌 3:8). 루터는 자신의 종교성을 “악취 나는 거름”을 의미하는 독일어 “reiffe dreck”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샤야는 동시에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찢림” (사 53:5) 고난 받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의롭고 의롭게 하는 자”(롬 3:26)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루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 그 하나님 안에서 분노나 무례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아버지 같은 친절한 마음을 바라보았다.”

훌륭한 신학자는 자신의 여러식음을 알기에 결코 “내 소망은 나의 영적 또는 지적 성고, 그리스어 동사를 분석하는 능력, 또는 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나를 숭상하는 신도를 주위에서 성경 해석의 화려한 묘기를 보여주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오래된 찬송가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이것이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굳건한 반석이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항상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by Thaddeus Williams, TGC

목회단상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와 천국의 영광의 거리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NC)

한국계 미국인이 자랑스럽게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일이 얼마 전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켄 정(Ken Jeong)'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정동근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켄 정에게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지역인 '그린스보로 출신 한국계 켄 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직 의사이면서 영화배우입니다.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닥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정동근 장로님의 90세 생신 때에 아들 켄정이 와서 사회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여 이름을 알리더니 결국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이라 함은 LA에 있는 할리우드 대로를 따라 3.1마일 정도 이어져 있으며 영화배우, TV 텔런트, 뮤지션 등 약 2,800명의 스타들의 이름이 대리석과 청동으로 된 별 모양의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LA에서 예전에 살았을 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를 많이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신기하고 독특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리에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니 자랑스럽고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그린스보로 출신 한국계 배우라서 장로님에게 아들의 일을 축하하였습니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아무나 그 거리에 이름을 새길 수 없습니다. 당대에 매우 유명해야 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리우드 거리를 생각하면서 천국의 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리우드 거리가 좋다면 천국의 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계시록 22:1-5)

이 세상의 거리와 비교가 불가한 거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천국의 거리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언어로 최대치를 설명했을 뿐, 분명 천국의 거리는 그 이상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거리를 거닐 수 있을까요? 할리우드 거리에 자신의 이름의 대리석으로 별을 새길 수 있는 자는 유명해야 하고 인기가 많아야 하고 자기 실력으로 아주 뛰어난 자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광스런 천국으로 입성하여 천국의 거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할리우드 거리의 입성과 천국 거리의 입성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들이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때, 함께 가셔서 축하하며 기뻐하셨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축하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켄 정 의 일은 그린스보로의 자랑이요, 한국계이기에 자랑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런 천국의 거리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보았듯 천국의 영광스런 거리는 우리가 앞으로 걸으며 크게 기뻐할 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며 새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12).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모든 환경에서 이기며 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이며 그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대리석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별을 새긴 거리에서의 기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기쁨으로 삼아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 49:16)
hanusa1962@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③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④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⑤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⑥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⑦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26(Mon)~27(Tue), 2025
b)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셉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아 이야기

금년에도 어김없이 뉴욕 센트럴 교회가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게 된다. 처음엔 몇 곡을 빼고... 선곡으로 합창

을 시작한 것이 벌써 25년 전이었다. 53악장 전곡을 연주한 것이 금년에 14번째로 열정과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대는 매우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예전에 그 많은 합창단이 사라진 지가 옛 얘기로만 남았고 현실로는 이단 종파인 물론 합창단이 유일하게 합창을 이어 오고 있다.

합창이 사라지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다. 전자시대가 열리면서 문화적 환경이 음악 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도 다양해졌고, 고전음악 보다는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음악을 선호하다 보니 고전음악은 점점 멀리 사라져 가고 있다.

헨델의 메시아곡을 전부 연주하면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곡은 오페라가 아닌 오라토리오의 대표적인 곡이다. 오페라와 오라

토리오의 다른 점은 무대 의상을 입지 않고, 몸동작은 없이 오로지 연주와 독창과 합창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라토리오 장르이다. 그래서 보통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대부분의 청중은 중간에 깊은 수면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연주회는 처음부터 이런 졸음 방지용 성화 배경에 가사를 자막으로 띄우게 된다. 전곡을 영어로 부르지만, 번역 가사가 시각적으로 성경 속의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야로 목상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감동과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졸려도 해도 졸 수 없도록 성화와 가사와 성악과 기악이 우리의 영과 육의 감정을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 감으로 평소엔 맛볼 수 없는 총명한 은혜와 진리가 청각으로 시각으로 신앙적으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성

곡 중의 성가를 맛보게 된다.

여기에 274년 전(1750)에 런던에서 초연할 때부터 수익금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왔는데 어김없이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금년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6곳의 선교 단체 후원금으로 보내지게 되어서 더욱 정성스러운 음악 잔치가 될 것이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동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는 하얀 종이와 같다고 본다. 그 순수한 감정과 인격 속에 현대판 음악으로 얼룩지게 하면 평생 저들의 인격과 감성은 세속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다. 그래서 순수한 자녀들의 감정이 세속화로 각인되기 전에 영원하고 온전하신 메시아 신앙의 정서와 신앙으로 채색하고 싶은 것

이 담임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 필자는 어린 시절 신앙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기억되는 노래는 노년이 되어도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데 공개하기가 부끄럽지만... 아! 아! 어찌 그리 그날을... 가슴 치며 통곡하던 날... 저 원수들의 무리들이... 어린 가슴에 애국적인 노래가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중에 다함하도 꼭 한번 성탄절야에 연극을 보려고 교회당에 갔는데 처음 들은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가 70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흥얼거린다... '탄일 종이 땀 땀! 은은하게 퍼진다... 우리 손자 손녀들... 백지 같이 순수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찬양으로 각인되도록 모두 모두를 초청하고 싶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조웅철 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인사 말로써 예의상 귀한 말입니다.

귀한 것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예의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주의 모든 필요한 것을 받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수 감사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사 즉,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1.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12)

이 찬송은 천상에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함께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메시지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늘 위와와 땅 위와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13, 14)

이 말씀은 천상천하 온 우주 만물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20-21)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요 자기를 불만히 여길 수도,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누가 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누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

어나게 하셨으니 태어났고, 살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19-20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이 내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이것은 통탄할 일이요,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20-23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17

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마다 매 주일 교회에 감사의 봉헌 대에 감사헌금이 가득히 바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생일감사 헌금을 잊지 말고 드리십시오.

주일에 주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정성껏 준비해 두었다가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교회의 신령한 확장과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목해 놓으신 십일조를 주일마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하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143장)

3. 셋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전파에 유익하다고

Giving Day나, 영고(迎鼓), 동맹(東盟), 성황제(城隍祭)나, 지신제(地神祭) 같은 것,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맥추절과 장막절(수장절)은 모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참 추수 감사는 우상적이어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농부가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수고한 뒤에 오곡의 결실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법(禮法)입니다. 씨를 뿌리면 썩어 나고, 썩어 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써는 알 수 없는 신비임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흙이 씨를 보호하고, 비와 이슬로 적시어주고, 태양은 증발시키는 일을 해서 자라고 결실함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오고, 콩 심으면 콩이 나오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를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고 씨늘한 이 세상에 핏덩이로 나오면 파듯한 어머니의 젖이 나를 기다려 품어주며 먹여 줍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이 좋은 오곡백과의 결실(열매)을 주어, 먹고 살게 하시니 이 오곡백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젖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자연의 공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숨결입니다.

사과 한 알 입에 물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젓꼭지입니다. 밤 한 톨, 감 한 개, 배추 한 쪽, 무 한 개, 술에서 훈건 내어 뽀는 찹쌀이 하나님의 젓통입니다. 농부가 추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나 도시인들은 없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인들이 농사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젖을 안 먹고는 못합니다. 한 고랑의 김도 안 매고, 한 방울의 물도, 거름도 주지 아니하고도 도시인들의 입에는 오히려 농부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신선한 채소, 신선한 과일, 고소한 기름이 들어가지니 오히려 농부 보다 농사짓지 않고도 하나님의 젖을 먹는 도시인들이 더욱 추수 감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1년간 총결산으로 하나님께 추수 감사를 힘껏 드려야 합니다. 추수 감사는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당연한 예법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그리스도께 뜨겁고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축복이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은혜를 총동원하여 감사합니다.

drjho@hotmail.com

다 반드시 드리십시오! 감사의 표시는 찬송과 물질로 고루고루 나타나야 합니다.

2.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히브리서 3:15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심장이 뛰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나게 하신 것보다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인생을 다시 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일곱마디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46)

기뻐했습니다.(빌 1:13)

또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빌 1:21)

바울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고후 12:9)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자기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몸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6:10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소리 높여 증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 얼마나 행복한 믿음이며 고귀한 생활입니까? 마음이 구슬픈 사람에게는 꽃을 봐도 슬프고, 노래를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만사를 귀찮게 여겨 짜증만 나고 불평불만 투성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은혜로 총만하고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삽시다.

4. 끝으로 추수 감사입니다.

추수 감사 역시 인간 본연의 정서입니다. 미국의 Thanks

세상에서 행복, 불행

삭개오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축복 속에 태어난 인생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세상과 등을 돌리고, 자신의 양심과 인격을 팔아가며 안면 몰수하고 돈 버는 데 목숨을 걸었다. 아름다운 도시, 여러고의 세리장이 되어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며 불행하고 외로운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일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만, 과연 그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반드시 불행하고, 불행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삭개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삭개오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세상에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적 감수성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갈망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들 안에 내적 갈망이 있다.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걱정부터 한다. 죄 가운데서,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늘 찢힘을 느낀다. 삭개오 역시 주님이 찾으시는 택한 영혼이었기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수치를 감수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한번도 명령하지 않은 일을 결단한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존재 이유였던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 놓는다. 가난한 자를 위해 절반을 내어 놓고, 토색한 일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한다. 거의 자신의 소유 전부를 내어놓는 일이었다. 이제 자신의 공간은 텅텅비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곳을 예수님으로

임질 것인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웃에게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보인다.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평생의 삶이 세상과 성경이 뒤섞여 뒤죽박죽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땅히 부러워하고 좇아야 될 것은 뒷전인 채, 세상의 허무와 공허만을 좇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때에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기준(Canon)이며 잣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책이 아니다. 인간의 살아갈 길과 불행의 원인을 보여주며, 마침내 죄로 인한 인생 불행의 원인을 치유받고 영생 얻을 길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당면한 불행을 이기

콜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다. 그 후에는 사울 왕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그의 심기를 경호하는 자리까지 오른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며 생명을 위협받았다. 그는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콜리앗을 물리친 것도 부족했나요? 혼신의 힘으로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도 모자랐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부었던 사무엘도, 사울왕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다. 사람에게 대해 원망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한다. 시편 57편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한다. 요동치는 마음을 바위같은 신 하나님께 턱하니 얹어두었다는 고백이다. 인생의 마음은 변덕이 죽 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에서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

-돈의 힘, 행복과 불행, 성경과 기준-

서 그는 "잘나가는 사람"으로 보였으며, 자신이 이룬 성공에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돈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순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삭개오보다도 더 냉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안면몰수와 양심의 부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돈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가능성을 끝없이 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상실한 영혼, 영감성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을 조금 돌이켜 본다면,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예리고 성에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 세상은 삭개오를 세상에서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길 잃은 한 영혼이었다. 삭개오는 외로웠고, 그의 영혼은 공허했다. 이는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는 분명히 세상이 부러워할 재력과 권력을 가졌지만, 한마디로 그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택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택한 영혼은

채웠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눈에 발견되자 나타난 기적같은 일이다.

신앙의 성숙, 변화된 시선

신앙의 성숙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게되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 성경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삭개오와 같은 세상에서의 성공자에 대해서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불쌍한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화려하고 좋아보이는 시선 때문에, 관점과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택한 영혼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겠지만, 그 과정은 심히 허망하고 공허할 따름일 것이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은 죄를 미화하고 박수치며 응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 예컨대, 최근 유명한 영화배우가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성경은 이를 죄로 규정할 뿐이다. 그 아이가 받을 영향과 상실된 정상적 가정의 축복은 누가 책

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부귀, 영화, 명예, 지식 등 좋은 것이 너무 많은 데, 굳이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를 필요가 있는가?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데, 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길을 찾지 못하고 산속에서 어둠이 찾아옴에도, 그저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에 만족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비상식량이 떨어지는 그 날에 망하는 것이다. 비상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조그만 식량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과 지식과 명예라는 것을 통해, 잠시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만족한 웃음을 띠며, 어리석은 부자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다윗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처럼 말씀에 마음을 확정하고 얹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삶 그 자체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목동으로 양을 치던 소년이 갑자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듯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될 때 요동치 않을 은혜가운데 머물게 된다. 그 요동치 않음의 근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할 때,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수 많은 역울함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은혜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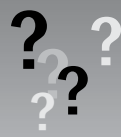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환경은 신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한결같이시다. 다윗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했다.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매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강권적 은혜, 계속 순종

매일 매순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했다. 택한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굳이 욕하는 군중들 속에 갈 이유 없이 아주 편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는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이 오신다는 길로 나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다. 키가 작은 것은 그저 작은 이유이고, 사람 근처에 가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찬양팀에 속한 여집사입니다. 같이 찬양을 하던 다른 집사님과 아주 친하였는데 어떤 일로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생겨 찬양팀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젠 사이가 벌어져 같은 교회에서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2부예배에서 1부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사우스베이에서 집집사가

화해와 용서

A: 미국의 극작가인 테니스 윌리엄스의 희곡인 “올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레이디는 그 아버지가 양조장과 큰 과수원을 경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거대한 주택에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던 어느 날 난폭한 불량배들의 습격을 받아 양조장과 집이 불타고 레이디의 아버지도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레이디는 다행히 제이브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여 아주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이디는 자기 남편 제이브가 양조장과 과수원에 불을 지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레이디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여 적개심과 복수심에 불타고 맙니다. 남편 제이브를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제이브가 불치의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됩니다. 매일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제이브를 보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음속으로 증오하며 잔인하게 내버려둡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가정을 파멸로 이끈 저 남자는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남편도 나중에 분노하여 결국 아내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 버립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테네시 윌리엄스는 이 작품을 통해 주는 교훈은 1) 사람의 삶에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줍니다. 2)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용서가 없는 삶은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비극적인 종말 뿐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집사님의 문제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만남의 자리를 맞이하십시오. 혹 화해가 안되도 집사님은 화해를 위해 성경대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어머니 마한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 빚진 신하처럼 하나님께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 더 큰 자비를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 보는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강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때려눕힌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싸움은 얻어맞은 자가 이깁니다. 자기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자는 원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선대하는 자는 원수보다 나은 자입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하였던 콘라드 목사는 목회를 잘하셨는데 유독 한사람이 목사님을 매사에 비판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나중에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콘라드 목사는 곧 전보를 쳤습니다. 3F로 Forgive, forgetting, forever (용서, 잊어버림, 영원히).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한번 더 그 마음을 작정하는 일이 있었다. 나무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다. 강권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이제는 주님이 더 성큼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 삭개오의 집을 심방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들인 후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된 물질을 내려 놓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창세전부터 택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액션이었다. 이에 대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순종이 그를 따랐고, 마침내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다.

말씀으로 성숙한 분별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영혼의 자유와 복을 상실한 인

생을 살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가진 이들조차 그 삶이 헛갈리게 보인다.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삭개오처럼 극적 반전을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좀 더 성숙한 자세를 원한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스스로 말씀과 기도가운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환경을 이기며 스스로 존귀한 인생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우리를 많이 헛갈리게 만든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말씀과 기도가운데서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주님 외에 주인 행세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어떤 환경속에서도 주의 주되심을 노래하며 참된 자유와 은혜의 길로 행해야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아름답게 장식하세

지하 스토리지에서 남편과
아들이 트리박스를 함께 들고
올라오며, 올해의 크리스마스

트리장식이 시작된다. 매년 추
수감사절 연휴 주일에 아이들
과 성탄트리를 장식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
다리며 한 해를 또 마무리한
다.

해마다 새로운 주제나 색상
과 재료를 정해서 아이들과 특
색 있게 꾸미거나 장식하는 가
정도 있지만, 우리 집은 두 남
매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만들어 온 오너먼트와 여행지
에서 사 온 오너먼트로 장식하
고 있다.

흥겨운 캐롤을 틀어놓고 함
께 흥얼거리며 1년 동안 박스
에 담겨있던 트리와 장식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닦아낸다.
첫 미국인 회중교회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이들
에게 선물 해 주신 커다란 트
리가 매해 성탄절기에 거실에
서 아름답고 은은하게 빛날 때
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

하며 기도한다.

크리스마스트리의 유래는
기독교가 시작되기 오래전부
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대 사람들이 상록수의 푸
르른 생명이 겨울에도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믿어 기원전 4
세기부터 상록수 나무와 가지
로 집을 장식했다고 한다. 이
렇게 고대 많은 나라에서 사시
사철 푸른 상록수가 질병과 약
령을 내렸다고 믿어 장식하
던 이교도적 기원과 현재 우리
가 사용하는 성탄트리와 비스
한 트리는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기독교적 기원으로 애
기한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
틴 루터가 16세기에 처음으로
성탄트리에 촛불을 붙였다고
이야기는 전해진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겨울 저

녁 마틴 루터가 집을 향해 걸
어가다가 전나무 가운데 반짝
이는 별들을 보고 경외심을 느
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
각하며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
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
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
운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존재
이다”라는 깨달음과 은혜를 사
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가족들
에게 전나무에 촛불을 켜서 그
장면을 재현하였고, 이것이 기
독교적인 성탄트리의 기원으
로 본다.

이제는 종교에 상관없이 세
계 곳곳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비싸고 화려한 새로운 장식으
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어디 어디 백화점이 어느 거리
가 더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를 선보일까 하는 기대마
저 생기게 한다. 너무 상업적
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나
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밝고
환하게 모두가 아름다운 빛 속
에 잠시라도 행복한 마음을 느
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나 성탄트리의 기원이
나 아름답고 화려한 트리장식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에
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탄
생을 함께 기뻐하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과 생명을 전함으로 우리 모
두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
다운 생명의 성탄트리가 되길
소망한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국익엔 정적 없었다... 바이든-트
럼프, 中때리기엔 '원팀'

조 바이든 미국 행
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발
표하며 정권 막바지
에 첨단기술 분야 중국 견제의 대못을 박았다.
미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중국
공산당'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중국에 대
해 '관세 폭탄'을 선포한 바 있다. 미국 국내 정
치에서는 최대 정적인 두 사람이 중국 견제에
서는 '원팀'처럼 협력하는 모양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일 "차세대 첨단 무기
와 군사적으로 중요한 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
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
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AI의 필수품
인 HBM 수출 통제에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의 직접 생산
품 규칙(FDPR)'을 적용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을 활용한 제품
이라면 미국 밖에서 생산돼도 수출 통제를 적
용받는다.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상
무부는 HBM뿐 아니라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며
해당 기업들에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
출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 단절은 하지
않으면서도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AI, 양자컴
퓨팅 등에서는 중국을 압박해 왔다. 2022년 8
월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
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
등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
난 9월에도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핵심 기
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
설하는 등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상무부
는 이날 수출 통제 배경을 설명하며 "중국공산
당의 반도체 전략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대량
살상무기 개발, 통제 의제를 더욱 강화해 초국
가적 퇴행을 촉진하고 인권을 억압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강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통
제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무기
는 관세다.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는 지난달 25
일에는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
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
적 강압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
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사기꾼' 저격... 머스크 라
이벌들 '나 떨고있나'

일론 머
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가 미
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력자로 떠오르면
서 머스크의 라이벌들이 공격 표적이 될까 두
려움에 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머스크의 공격 가능성에 가장 노심초
사하는 인물인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오픈AI 창
립 당시 공동 투자자였지만 지금은 오픈AI가
챗GPT의 오픈 소스 공개와 비영리 임무 지속
약속을 저버렸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일 정도로 올트먼과 적대 관계에 있다. 2015
년 올트먼을 비롯해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리
드 호프먼, 피터 틸 클래리엄캐피털 대표 등과
함께 인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범용 인공지능
(AGI)을 개발하자는 사명으로 오픈AI 설립에
참여한 머스크는 올트먼 등이 영리 활동에 나
서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으며, 지난해 7월엔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올트먼의 챗GPT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지난 10월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선 "나는 올트
먼을 신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통제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선 직전 올트먼이
xAI의 챗봇 서비스 '그록'이 트럼프보다 카밀
라 해리스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
한 대화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머스크
는 "그록이 트럼프와 해리스를 각각 언급한 답
을 내놨는데 올트먼이 왜곡한 것"이라며 "사기
꾼 셈이 돌아왔다"고 반격했다.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한 인사는 WSJ에 "머
스크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 때문에 올트먼은
트럼프 진영에서 '페르소나'는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뿐
아니라 머스크의 각종 기업활동 및 정치적 발
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 등도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테슬
라의 미국 내 자율주행 상용화 전략에 가장 크
게 반대하며 정부 규정에 동참했던 포드·제너
럴모터스(GM) 등 자동차 기업들도 머스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WSJ는 소
개했다.

WSJ는 "트럼프 대선 자금으로 2억 달러를
쏟아붓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
에서 '내가 바로 대통령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스크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누가 봐도 이상
하지 않을 정도인 그의 '그림자 대통령(shadow
president)' 행보에 그와 라이벌 관계인 기업인
과 기업들은 트럼프 측에 직접 줄을 대려고 안
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추수감사절 직후 폭설, 美 100cm
넘게 눈 쌓인 곳 속출

미국에서 펜실베
니아, 뉴욕주 등 오
대호 주변 지역에선
지난 주말 폭설이 내
려 여행자와 운전자
들의 발이 묶이고, 쌓
인 눈 때문에 주택이
매몰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 최대 휴가철 중 하
나인 추수감사절(11월 28일) 직후여서 눈 속에
고립된 차량이 잇달아 발생했다.

2일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대호 주변 지역에선 '호수 효과'로
인해 최대 10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 호수 효
과는 차가운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호수 위를
지나갈 때 눈이 돼 내리는 현상이다. 남하하던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오대호의 따뜻한 물을
빨아올려 강한 눈을 만드는 것이다. 오대호는
미국의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욕주와 접하
고 있다. 이날 미시간주 경찰에 따르면 12대 이
상의 차량이 눈 속에 충돌사고를 일으켜 최소
한 명의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도로는 양방
향으로 폐쇄됐다.

이번 폭설은 추수감사절 직후에 발생해 이동
에 불편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뉴욕주 경찰은
추수감사절인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사이 뉴
욕 서부 일부에서 펜실베이니아주까지 최소
110대의 차량을 도왔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상황이 빠르게 악
화되자 1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이튿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
행정부는 뉴욕 서부와 북부 지역의 눈보라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주 정부 기관과 100명 이상의 주 방위군
대원이 폭풍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있
다"고 전했다. 조시 사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
사는 주 방위군을 불러 고립된 운전자를 돕고
응급 구조대원이 갇힌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
도록 요청했다고 엑스에서 밝혔다. 사피로 주
지사 측은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이 지난달 29,
30일에 걸쳐 24시간 동안 약 200건의 도로 사
고에 대응했다고 집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카운티에서는 운전자
중 일부가 제설 작업 중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
다. 이리의 자치구인 노스이스트에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30일 오후까지 106cm가 조금 넘
는 눈이 쌓였다. 뉴욕 반스 코너스 마을에는 30
일 아침까지 116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호수
효과로 악명 높은 뉴욕의 티그 힐 지역 일부에
는 약 165cm의 눈이 쌓였다. 펜실베이니아 북
서부와 뉴욕 남서부의 일부 지역은 3일까지 약
50.8cm의 눈이 더 쌓일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
했다.

퇴임 앞둔 바이든, 차남 헌터 사
면... "악속 어졌다" 비판 직면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이 1일 불법 총
기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
터 바이든을 전격 사
면했다. 바이든 대통
령은 아들에 대한 '완
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에 서명한 뒤 "한 아버
지이자 대통령인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
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그동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
선인이 사면 시스템을 자신을 위해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하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
령이 퇴임을 한 달여 남은 시점에 아들을 사면
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에서 "헌터 사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헌터가 단
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장에 따르면 헌터
의 사면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
일까지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
든 범죄에 대해 조건 없이 적용된다. 바이든은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인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반 동안 급주해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들은 헌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고 여기서 멈출 것이
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고 말했다.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
죄 판결을 받은 헌터는 4일 형량 선고를 앞두
고 있었다. 2018년 그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
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하고 소지했다는 혐의
다. 헌터는 9월 탈세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
했다. 총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탈
세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은 아들의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그
는 "범죄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 구매하거나 밀
수로 구입하는 등의 가중 요인이 없는 한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 혐
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
적했다. 이어 "심각한 중독으로 세금을 늦게 납
부했지만 이후 이자와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납
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범죄로 처리된다.
헌터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
했다. 바이든은 또 "헌터의 기소는 의회에서 정
치적 반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선거에 반
대하도록 선동한 후에야 이뤄졌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헌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나는 가장 어두운
중독의 시기에 나와 내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
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데 악용된 내 실수
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다"며 "내가 오늘 받은
사면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을 아
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바이든과 백악관은 헌터를 사
면하거나 감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AP통신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법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이든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도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드류어? 로어? 슬롭?” ... 옥스
퍼드 올해의 단어 후보들

영국 옥스퍼드대가
'뇌 부패'(brain rot)
를 올해의 단어로 선
정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
는 2일 홈페이지에 “
뇌 부패'를 올해의 단
어로 발표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언어
전문가들이 연중 6개로 압축한 최종 후보를 놓
고 3만7000명 이상이 2주간 공개 투표에 참여
했고, 광범위한 대화를 거쳐 뇌 부패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미권 주요 사전 중 하나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발간하는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매년 올
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카리스
마에서 파생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
는 뜻으로 사용되는 '리즈'(rizz)가 뽑혔다. 옥스
퍼드대 출판부는 '뇌 부패'를 "사소하거나 도전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온라인 콘텐
츠를 과도하게 소비해 지적·정신적으로 퇴행
하거나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과도
하게 생산되는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뇌 부패'
에 주목했다"며 "이 단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사용량이 2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뇌 부
패'는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짧은 분량으로 생산되는 영상 콘텐츠, 이른바
숏폼을 소비하는 영미권 10~20대가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자조를 담아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Z세대(1995~2009년
생)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의 커뮤니
티에서 주로 언급되던 '뇌 부패'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과잉 소비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주류 언론도 사용하는 표현이 됐다”고 부연했
다.

나머지 5개의 후보작도 2024년을 상징할 만
한 단어들로 제시됐다. BBC에 따르면 단정하
거나 암전한 외모·행동, 혹은 지나친 과시·노
출을 피한 외상을 묘사하는 '드류어'(demure)
와 실시간 변동 가격제를 뜻하는 '다이내믹 프
라이싱'(dynamic pricing)도 후보에 올랐다. 또
특정 주제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구전되는
배경지식을 통칭하는 '로어'(lore), 연애·판타지
요소를 결합한 장르인 '로맨타지'(romantasy),
인공지능(AI)으로 조악하게 생성된 창작물을
칭하는 '슬롭'(slop)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4. 황인환 (1878-)

황인환은 1878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그는 이무골에서 거주했다. 경기도 여주 오향동에 이무골이 있고, 경북 안동 풍천면에 이무골이 있고, 경북 청송 진보면에 이무골이 있고, 경남 함안 범수면에 이무골이 있다. 이들 중에 거주했을 것이다.

26세가 되던 1904년에 황인환은 아내를 한국에 두고 홀로 하와이 노동 이민선 몽골리아 선편에 올랐다. 그는 그해 7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렸다. 그의 이름은 영문으로 Whang In Whan 또는 Whang In Wro 표기됐다.

초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 명부에 황인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 그가 한국에서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16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11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그해 하와이섬에는 다섯 지역에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다. 고향라 지역, 힐로와 하갈나우 지역, 호놀과 국구해리 지역, 파팔나 지역, 코나와 노스랜드 사우드 지역 그리고 파팔노아 지역이었다. 본 선교연회는 황인환을 하와이섬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일반적으로 2, 3년간 권사로 파송하였다가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전도사로 파송하였으므로 적어도 1914년과 1915년에 황인환이 권사로 파송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1914년부터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달에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와 국구해리 한인 감리교회를 순회하는 목사로 박세환을 작년에 이어 파송하였고, 이완구, 변성운 그리고 고덕화를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황인환이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 받을 당시 본 교회 통계를 따로 있지 않았고 국구해리 한인 감리교회와 합산되었는데 아래와 같았다. 주일 학교가 네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21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62명이 등록하였다. 학습 교인이 11명, 세례 교인이 45명, 유아세례 교인이 28

명이었다. 앤워스 청년회에 30명이 등록하였다.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는 650달러 시가의 예배당을 소유했고, 예배당을 위하여 지불하고 수리한 비용이 235달러였고, 연료와 전기 등에 45달러를 지불했다.

1917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구할 수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어 1916년과 1918년 그리고 1919년에도 황인환이 전도사로 파송된 정황으로 볼 때 1917년에 모인 제12회 하와이 선교연회도 황인환을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에 파송한 것으로 보인다.

1918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13회 하와이 연회가 소집되었다. 그해 하와이 연회는 황인환을 재작년에 이어 이난C와 함께 하와이섬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전도사를 한 사람 더 파송한 것으로 보아 본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재작년과 다르게 순회목사가 아닌 담임 목사로 박세환을 파송하였음에서나 재작년보다 2명이 많은 5명의 권사를 파송하였음에서도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재작년에 파송된 세 사람이 아닌 정한흥, 변성환, 박조범, 이성우 그리고 최성약을 권사로 파송하였다.

1918년 3월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의 통계를 국구해리 한인 감리교회와 합산된 재작년 통계와 비교하면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된다. 주일학교가 두 곳이 적은 두 곳이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10명이 적은 11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32명이 적은 30명이 등록하였다. 그러나 그 수치가 절반에 가까우므로 성장하지 않았고 현상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 교인은 두 교회가 합친 수보다 29명이 많은 40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0여 명이 적은 30여 명이었고, 유아세례 교인이 18명이 적은 10명이었다. 앤워스 청년회에 10명이 적은 30명이 등록하였다. 재작년과 같이 650달러의 시가를 가진 예배당을 소유했는데 예배당을 위하여

지불하고 수리한 비용이 110달러가 적은 125달러였다. 새 향목으로 훈련비로 40달러를 지불했고, 기타 목적 헌금이 578달러였다. 위에서 비교한 수치를 볼 때 대체로 현상 유지였으나 학습 교인과 헌금이 많았다. 그러므로 재작년과는 다르게 많은 사역자를 파송한 이유가 신참 교인이 많았고, 헌금 생활에 열심 있는 교인이 많았을 뿐 아니라 호놀과 지역 농장에 한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919년 3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모였다. 하와이 선교연회 감리사 윌리엄 H. 프라이 목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인 감리교회에 두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하와이 선교연회가 이름있는 부흥사였던 김US 목사를 한국에서부터 초청하여 각 한인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여 한인 이민교회의 정치적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초청 강사 자신이 실패하였다는 보고서를 냈고, 다른 안타까운 사건은 하나 한인감리교회를 시무하던 최S은이 병환 요양차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소천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목회는 긍정적이었다. 1919년 하와이 선교연회는 호놀과 한인감리교회에 박기홍 목사를 파송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황인환 전도사를 본 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황인환 전도사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한 명 많은 2명의 전도사 곧 김정구와 이만춘을 파송하였다. 이로써 작년보다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 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0명이 세례를 받았고, 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학습을 받았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세 곳에 있었고, 교사와 직원은 3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38명이었다.

그해 8월에 신한민보는 '동족을 사랑하면 우리 적십자회에 응모하시오'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고, 부제는 '적십자회를 도우시오'였다. 이 제하에서 '본사에서 00에 있는 대한민국 적십자회 본부의 명령을 좇아 이제 적십자회원과 회금을 모집하오니 우리 독립과 자선 사업을 찬조하시는 동포들은 기회를 잃지 말고 곧 응모하시오. 회금은 1달러 이상으로 내지 100달러까지 수의로 낼 수 있나이다... 적십자회 지부 신한민보사.'라고 썼다. 많이는 5원을 냈고 적게는 1원을 냈는데 황인환은 1원을 냈다.

이듬해 5월에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남태 동포들 수십 명이 하와이 한인 적십자회 지부를 조직하였다. 우선 사무에 착수하여 임시 임원을 조직하였는데 황사용 목사와 함께 황인환이 자치 규정을 기초하기로 하였다.

1920년 이후 하와이 선교연회가 전도사와 권사 파송 명단을 선교연회록에 게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5년 5월에 발간된 한인교회보에 '근친차로 귀국'이라는 기사에서 황인환을 찾을 수 있다. "하와이섬 호놀과 교회 전도사 황인환

씨는 몇 달 전에 자모상의 부음을 받고 낱날 망극지타를 이기지 못하여 동동복식이다니 생존하신 춘부장이 나가보옵는 것이 자식의 도리될까 하여 금월초 4일 천양한 선편으로 출발하였는데 황인환 씨의 부인과 처제인 김공도 여사도 출항하여 부두에서 여러 형제자매들과 한가지로 석별하는 정은 바닷물과 같이 넓고 깊더라. 그런데 황인환 씨의 돌아올 기한은 3, 4사이라하니 무사히 회한하기를 바란다더라." 이 기사에서 그해 5월에 모친상의 부음을 받아 3, 4개월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던 황인환을 1925년 4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한 제20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한명교를 호놀과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파송하면서 전도사로 파송하였음을 알게 된다.

황인환이 파송되던 1925년 4월에 보고된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의 통계는 아래와 같았다. 유아세례 교인이 3명, 학습 교인이 16명, 세례 교인이 14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0명이었는데 평균 출석도 10명이었으며, 예배당 가격은 1,000달러로 상승한 반면에 지난 한 해 지출 경비는 3달러였고, 세계 봉사기금으로 10달러를 헌금했다. 이상에서 본 바로 1918년과 비교할 때 교회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황인환 전도사가 1년간 사역한 결과를 1926년 4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황인환이 파송되던 1925년 4월에 보고된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의 통계는 아래와 같았다. 유아세례 교인이 1명이 준 2명, 학습 교인이 2명이 준 14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

명, 세례 교인이 5명이 준 9명이었고, 주일학교 보고와 건물 보고와 지출 보고는 없었고, 세계 봉사기금으로 5달러가 준 5달러를 헌금했다. 이로써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임을 알게 된다.

1918년 11월에 박용만이 호놀룰루에서 창간한 태평양시사가 오랫동안 정간되다가 다시 개간되어 제301호가 발행되었는데 발행자인 대조선 독립단에서 1926년 2월에 호환 총단 내에 대표 회의를 열고 의장 홍한식 목사 사회하에 총단 임원 선거가 있었다. 총단장으로 김윤배가 다시 되고, 황인환이 부단장 겸 주필로 피선되었고, 총단 임원으로 총무에 김홍범, 서기에 김이제, 재무에 차병수, 군무에 김상원, 법무에 이상호,

학무에 홍한식, 구제에 신국경, 교제에 이원순, 노동에 이복희로 조직하였다. 그해 통상 수입은 대략 3,000달러였고, 지출은 대략 2,800달러였으며, 작년에 빚지고 갚지 못한 비용이 476달러, 잔고가 1,080달러 73센트였다. 그런데 그해 3월에 중간되었다.

1935년 1월에 제27회 통상대의원회의를 총회장 김윤이 개최하고 9개 지방대의원을 소개하였다. 황인환은 학갈라우 대의원이었다. 이날 의장 이호직의 사회로 의회를 조직하였는데 황인환은 장두찬과 더불어 건의서 조사위원회 선정되었고, 찬의에 조병요, 기사에 지인영, 통신 서기에 승용환, 사교위원회에 김한경, 재정 조사위원회에 승동환과 박승준, 비조물 조사위원회에 전익주이었다.

와이파후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동 지방 국민회 서기로 시무하던 박상근이 1935년 9월 26일 밤 9시에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 세상을 영결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총회의 서무원과 함께 황인환이 와이파후 농장으로 출장을 갔다. 황인환 일행은 동 지방 국민회 대의원 이봉수와 일반 회원과 함께 다음날 동 지방 공동묘지에 박상근을 안장하였다. 박상근은 61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에 '11세 때 양친을 떠나 실사하여 나섰었다... 남은 바는 늙고 병 들은 것뿐 악을 끊고자 하나 신체가 쇠약하고 이제는 악을 살 돈도 없어서라'하였다.

다음 달에 호놀룰루에서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합동 중개인은 김성욱, 최선주, 조병요, 안창호였고, 국민회 대표는 황인환을 위시하여 승용환, 박승준, 박상하였으며, 동지회 대표는 이원순, 조석진, 김이제였다. 이날 중개인의 제안으로 합동에 대한 두 기관의 조건을 듣고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1936년 1월에 하와이 국민총회 대의원회가 있었다. 이날 신임 총회장 조병요가 임원회를 조직하였다. 황인환은 서기로 선정되었다. 이날 몇 가지를 가결하였다. 총회 구제청장을 위하여 기본금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특연으로 교과서를 출판하기로 하였고, 매사수봉되는 대로 임시정부로 납상하기로 하였고, 임원회에 위임하여 경제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기본금 다액을 필란한 회원 11인으로 총회 소유 보관위원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듬해 1월 하와이 국민총회 총회장 조병요가 임원회를 조직하였다. 작년에 이어 황인환은 임원이 되었는데 그해는 재무였다. 이날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청년을 국민회 예비회원으로 받고, 부인 구제회 중앙부 2인이 국민회 대의원으로 출석하기로 하였다.

황인환은 호놀과 한인 감리교회 권사와 전도사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적십자회와 태평양시사 그리고 국민총회를 통하여 조국 통일과 민족 사랑을 꾀했다. 그의 마지막은 숨져졌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718) 461-2810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 (Ext.),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 일 3부 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 어 예 배: 오후 12:00 영 어 예 배: 오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pc.org 43-23 73rd St., Queens,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 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 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 영 어 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백기도: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 일 1부 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배: 오전 12:00 영 어 예배: 오후 8:45 금요일도: 오후 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문화: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kbc.org 14 Gre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 (월-토) Tel: (516) 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6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718) 461-2810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 (Ext.),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 일 3부 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 어 예 배: 오후 12:00 영 어 예 배: 오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pc.org 43-23 73rd St., Queens,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 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 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 영 어 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백기도: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 일 1부 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배: 오전 12:00 영 어 예배: 오후 8:45 금요일도: 오후 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문화: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kbc.org 14 Gre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 (월-토) Tel: (516) 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364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 일 1부 오전 7:30분 주 일 2부 오후 1:50분 주 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2:20분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 일 2부 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세백기도 화: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 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 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 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 일 4부 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세 백 기도: 오전 6:00 Tel: (718) 6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 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 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L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 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주 일 저녁 예배: 오전 7:00 수 요 기도회: 저녁 9:00 7:14 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 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 요 오후 예배: 오후 2:00 (영어) 수 요 예 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5:30 금요일도: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 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 요 삼일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 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 일 3부 예배: 오후 12:30 (영어) 주 일 4부 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도: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 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 일 2부 예배: 오후 3:00 주 일 3부 예배: 오후 5:00 Tel: (52) 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 칼빈의 영적인 순례

6. 최초의 제네바 체류

칼빈은 자신이 탁월하다는 평가와 명성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그 책자를 펴낸 직후 바젤을 떠났다. 심지어 바젤에 있을 때에도 그가 그 책을 썼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그 일을 계속 비밀에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칼빈을 제네바에 불러들여 두었다. 파렐은 점잖은 충고와 강요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뻗어 자신을 붙잡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협박을 가하면서 제네바에 머무르도록 했다고 한다.

칼빈이 은거하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 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적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를 경유하며 스트라스부르 그로 갈 계획을 세웠다. 제네바에서는 하룻지낸만 지낼 생각이었다. 파렐과 피에르 비레(Pierre Viret)는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제네바로부터 교황주의자들을 몰아내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악하고 위험한 파당들이 시를 분열시켜 놓았다. 제네바에 체류하고 있을 때, 비열하게도 배반하여 교황청으로 돌아선 어떤 사람이 칼빈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신분을 알렸다.

이때에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놀라운 열정으로 불붙고 있던 파렐이 갑자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칼빈을 붙잡았다. 칼빈이 조용히 숨어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파렐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칼빈이 들어주지 않자 마침내는 저주를 퍼부었다. 파렐은 칼빈이 한가로운 자신의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그와 같은 비상시국에 도움을 주기를 거부한다면 칼빈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칼빈은 크게 압도당하여 여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은 자신이 수줍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특별한 직책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고백한다.

그 일이 있은 뒤 4개월이 되기 전에 재세례파들이 제네바를 방문하였고 칼빈은 완전히 공개된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른 바 200인 회의 석상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에 걸쳐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 18일과 19일까지 계속된 토론 후에 이 회의는 재세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표결을 하여 도시를 떠나도록 명령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몇 명의 저명한 인사들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칼빈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환난을 안겨 준 어느 사악한 배교자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두 차례 신고로 개종했다가 마침내는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간 파리출신 학자 Pierre Caroli가 이 당시 근처의 로잔(Lausanne)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Caroli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던 Viret을 옹호하기 위하여 칼빈이 로잔에 가자, Caroli는 칼빈을 향하여 칼빈의 첫 번째 교리문답(1537-1538)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다는 점과 소위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칼빈을 아리안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오랫동안 계속된 토론을 거쳐 칼빈은 아리안주의자라는 혐의를 벗었다. 물론 칼빈이 아리안주의자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난동들이 발생하여 칼빈과 동료들을 괴롭혔다. 이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칼빈은 자신이 겁 많고 우약하고 소심함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이런 격랑들을 견디어 내야했으며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 후, 몇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네바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자, 그 자신은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

7. 스트라스부르 그 체류

이런 방법으로 해방된 칼빈은 어떤 공적인 책임도 맡지 않고 조용히 지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칼빈은 제네바로부터 축출되었지만, 탁월한 그리스도의 종 마틴 부처(Martin Bucer)가 파렐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저주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직위를 떠맡겼다. 부처는 칼빈을 향하여 "많은 재능들을 부여받고도 요나와 같이 제공된 사역을 맡지 않으려 한다면 선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1538년 1월 경 바젤에 있는 칼빈에게 서한을 보냈었다. 부처가 칼빈을 요나에 비유하면서 위협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칼빈 자신은 강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칼빈은 언제나 큰 모임에 얼굴을 나타내거나 참여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도 그도 모르게 제국의회에 끌려 나가 좋은席을 대중에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주님은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서서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던 위험한 격정과 난관들을 진정시켜 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웨방자들의 잔인무도한 시도와 사악한 책략을 분쇄하였다. 그때 칼빈은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자신이 처음 맡았던 직책을 다시 맡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의 목사 베드나르다(Jacques Bernard)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양심상 나는 현재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심의 소리 때문에 스트라스부르 그를 쉽게 떠나지 못하겠다. 양심은 타당하고 거룩한 것이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의 증거이며 세상에 대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증거이다. 나의 사역이 나에게 불행하고 불운한 것처럼 보였던 재난의 시간, 제네바 추방 이후 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부르시지 않는 한, 즉, 주님께서 내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도록 어떤 필요를 제시해 주시지 않는 한, 내가 먼저 교회의 어떤 지위를 떠맡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완강히 그 같은 결심을 고수하자 스트라스부르 그에 있는 자들은 나를 이길 때까지 나에게 다양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난 뒤부터 마침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요나의 경우와도 같이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파수군의 직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칼빈의 양심 속에서는 이 교회의 안녕이 항상 염려의 대상이었다.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버리려는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워낙 소심했던 자신은 온갖 핑계를 둘러대면서 그 같은 무거운 짐을 직접 떠맡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의무감에 사로잡힌 칼빈 자신은 그가 이별을 고하고 떠나왔던 그 양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칼빈은 마침내 1541년 9월 13일 스트라스부르 그로부터 제네바로 돌아왔다. 베자(Beza)는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온 해인 1542년에 환난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서술한다. 자신이 양떼들을 맡게 되었을 때 눈물과 큰 걱정과 좌절 그리고 슬픔이 그를 엄습했다. 이 일에 대해 칼빈 자신은 주님이 그의 증인이라고 고백한다. 그가 이 난관을 극복해주시기를 고대하던 몇몇 선한 사람들이 또한 그의 증인인 것을 표현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ITS 교수)

사모 세미나

지난달에 1박 2일 동안 사모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다. 가정사역을 하는 제자가 '사모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일 년에 한 번씩 목회자 아내를 위한 쉼의 자리를 마련했다. 규모가 작은 모임이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목회자 아내들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목회자의 아내들이 강의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시작하던 첫해에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이라는 강의로 동참했는데 올해 다시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동병상련이라고 비록 목회자 아내 십년 차에 도중하차 했지만 나는 목회자와 아내들을 생각하면 어쩐지 안스러움을 동반한 동지 의식을 느낀다. 은퇴한 상황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섬길 기회여서 흔쾌히 강의 수락을 했다. 어떤 주제가 좋을지 생각하면서 책 몇 권을 싸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많은 생각 끝에 목회자의 아내라는 위치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정서를 잘 돌보지 못하거나 감정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모'를 주제로 정했다.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출판 이후로 크리스천의 정서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이념목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곁에 있는 아내에게는 더욱 정서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사모이기 때문에 'No'를 할 수 없어서 이 일 저 일을 다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 아래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파우먼, 월터우먼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은 사모는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또한 목회자 아내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고 짜증이 나도 짜증을 낼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언젠가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사모님을 보며 좋다는 생각보다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모는 이래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미소를 띠고 있다면 그 미소는 벗어버리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기쁠 때 기뻐하고 짜증이 날 때 짜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사람들이 쏘아대는 화살에 다치지 싫어서 감정을 보호하는 두꺼운 갑옷을 입으면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튼튼한 갑옷 속에서 아름다운 정서까지도 질식해버릴까 염려스럽다. 목회자의 아내는 온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사모가 얼마나 많을지,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있는 사모는 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다.

첫 강의는 열심히 준비한 대로 마쳤다. 두 번째 강의 전날 밤에 그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어보았다. 강의노트에 없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텅으로 따로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이미 계획된 내용에 묶이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었다. 참가한 분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과 삶을 나누기도 하고 캘리그라프를 배워서 간단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나눔의 시간에는 오래전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있었다. 스물다섯 명 참가자 중에는 목회 중에 느낀 단상과 시를 모은 책을 출판한 분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시집을 출판한 젊은 사모도 있었다. 다 함께 글을 모아 책을 펴내자는 좋은 의견도 나왔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향하는 뚝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한 보람과 작은 기쁨으로 감사했다. 사모님을 힘내세요!

linda.pyun@itsla.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인도-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korss@yahoo.com 603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9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046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금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유지, 워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인간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6, www.horena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337 706 Wilmer Rd, Hoshang,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213-1200, (254) 66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감사함으로 저야 할 십자가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
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모두

머리에 돌을 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강 한가운데 가면 물살이 어찌나 센지 돌을 지고 가지 아니하면 떠내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어깨에 메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이르러 랍비는 제자 둘에게 각각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 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지 하루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밑에 내용땀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구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마음이 상한 채 슬

픈 얼굴로 두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돌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러자 “설마 무게가 똑같았는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지고 갔고, 저만 찢궜매었다는 것입니까?” 랍비가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자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있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 준 거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런 삶인 것입니다!

“시흠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songkpak@hotmail.com

인/터/뷰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Beloved Concert 준비중인 러빙워십

2023년 10월 제이어스의 찬양콘서트와 지난 8월 가수 비와이(BewhY) 선교 콘서트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Q: 지난 두 번의 콘서트를 돌아보면 기대 이상의 성원 속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작년 12월에 있었던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찬양 공연은 12월 17일 LA NOVO 극장에서, 22일과 23일 OC Grove 극장에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4천 3백명 정도의 관객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올해 8월 17일 BewhY 선교 Concert With Loving Worship 또한 LA Novo극장이 꽉 채워질 정도로 15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BewhY가 가장 놀랄 정도로 객석에서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앵콜들이 쏟아졌었죠.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Q: 지난 콘서트와 이번에 기획이 된 Beloved concert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A: 지난 8월의 BewhY Concert는 안 믿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Concert였다면, 이번 12월 Beloved Concert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데리고 함께 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Healing Concert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님, 박요한 목사님, <위

서트를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한국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팀이 많은 기도와 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Beloved concert의 총감독은 Hollywood에서 음향 감독으로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상처받은 가정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Beloved Concert를 통해서 Healing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콘서트에 대해 바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Beloved Concert With Loving Worship를 통해서 모

“아무 것도 바라 볼 수 없는 시간에 꿈꾸기 시작한 문화선교, 문화선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파”

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 언론, 방송과 교회들께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Loving Worship의 문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Local 교회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cal 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문화 선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Local 교회들이 중요성을

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상처받은 가정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Beloved Concert를 통해서 Healing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콘서트에 대해 바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Beloved Concert With Loving Worship를 통해서 모

새롭게 하소서 팀과 함께하는 BELOVED 콘서트 포스터

두가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Loving Worship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시간에 문화선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자원, 재정적인 Support가 없는 상황에서 무릎 기도로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렸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망, Beloved Concert를 통해서 소망을 깊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티켓은 \$30, \$40, \$50이며 티켓구입문의는 (213)357-1565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기쁨과 영원을...

(1면에서 계속)

지난달 60여 개의 크리스천 디자인 브랜드가 참여하는 마켓 플레이스에 다녀왔다. 디자인으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경하고 구매도 하며 많은 질문들을 품고 돌아왔다. 크리스천 디자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심이 옮겨갔다. 그들의 공통적 바람은 이렇다.

"디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나만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다."

"대중의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디자인으로 생계를 꾸릴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이런 동기는 너무 추상적인 출발점이다. 그런 생각만으로 디자인 업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품의 구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갈등이 끊이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성경 신학적 가르침을 소개하려 한다.

디자인 본연의 즐거움을 꾸준히 맛보라

디자인의 기초는 창조세계의 조화로우에서 시작한다. 고대 피타고라스인들은 “질서와 비례가 아름답고 적절”한 것을 중요시 여겼고, 플라톤은 “정도와 비율

의 유지”가 아름다움에 가장 중요하며, “정도의 부재는 추악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은 규모와 질서 정연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움의 주된 형태는 질서, 비례 및 명확성”라고 정의했으며, 스토아학파는 “부분과 상호간과 전체에 대한 비율”을 중시했다. 미국의 폴러신학교 문화신학자 윌리엄 더니스는 그들의 미적 기준이 우주적 질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즉, 창조된 세상은 완전은 그 질서, 대칭, 일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와 조화로우를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다.

이 조화로우의 특징은 그 자체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에 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에 대한 설명은 창조에 대한 자세하고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창조의 질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에덴동산의 어원이다. ‘에덴’의 어원은 ‘비옥한 평원’을 의미하며 히브리 단어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산’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의미로 이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특별하게 디자인하신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은 ‘기쁨의 정원’ ‘즐거움의 정원’ 또는 ‘낙원’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서는 창세기 2:9로,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자들의

시각을 빌려, “눈과 미각을 위한 즐거움의 조화” 즉 “사람들을 끌어당겨 즐거움을 주고, 그들 안의 기쁨과 경이를 깨우고, 창조를 향한 열망을 창조하게 하는”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물은 즐거움을 유발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기뻐하신 조화와 질서를 재창조한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 속에 영원의 가치를 담아라.

디자인된 사물과 공간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 즉각적 변화로 인한 도파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번째 같은 보상의 쾌락을 잊지 못하고, 불행히도 일상에서의 기다림 속에 주어지는 작은 기쁨들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 업계의 생태계는 언제나 유행에 민감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예수와 신부이기도 했던 미셀 드 세르토 신부의 사상을 인용하며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칙을 발표하 바 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권력의 공간들을 독점하려는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보았다. 즉, 이는 ‘모든 것을 현재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는 시간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록 시간은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키지만 시간

만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밝혀 주기 때문이다.

현실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의 시간’이다. 2001년 부활절 연휴 기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매치기꾼들에게 배낭을 잃은 직후 도착한 로마에서의 여행이 떠오른다.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도,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찬란함도, 폴로세움의 그 고풍스러움도, 말쑥한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저 거칠고 사납게 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여덟 시간을 견고 민박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때야 비로소, 온갖 짜증에서 벗어나 그 아름다움을 되새길 수 있었다.

그 밤은 때로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그 자리의 아름다움을 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모멘텀이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확인하지만, 오히려 실상을 벗어날 때 더 잘 보일 때가 있다.

따라서 고독의 시간으로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고 싶은가? 고독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찬양으로, 영원의 지금을 반드시 느껴보라. 당신의 디자인에 즐거움과 영원의 가치가 심기기를 바라며,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참가자 활동모습

KFAM 가정폭력 40 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성향리에 종료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 12 명 수료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가 한인 종교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정폭력 40 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 돼,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은 가정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교육에는 12명의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가 참여해,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피해자 상담 기법 △안전 계획 수립 △법적 지원 절차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식 인증된 과정 이수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종교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인상깊었다”며 “앞으로 더욱 건강한 한인 가정과 이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동부교계 게시판

더나눔하우스, 후원 감사의 밤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는 12월 8일(주일) 오후 5시 KCS HALL (203-05 32Ave., Bayside, NY 11361)에서 2024 후원 감사의 밤을 개최한다.

▲ 문의: 718-683-8884

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뉴저지장로교회는 52주년을 맞이하여 12월 8일(주일) 오후 3시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제8대 담임목사 구분웅 목사 취임식 및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예배를 드린다.

▲ 문의: 201-337-1313

보스턴장로교회, 복콘서트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12월 10일(화) 오후 7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의 저자 정민영 선교사가 참여하는 복콘서트를 개최한다.

▲ 문의: 508-435-4579

뉴욕효신장로교회, 성탄맞이 창작뮤지컬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성탄을 맞이하여 12월 11일(수) 오후 8시 본당에서 “My Father's House”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 입장권은 무료이다.

▲ 문의: 718-762-2525, 5756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

지역교회부흥선교회(허윤준 목사)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를 12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드린다.

▲ 문의: 718-637-1470

뉴욕교협,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성탄의 기쁨을 뉴욕교협산하 교회들이 연합하여 찬양의 축제를 함께 하고자 12월 13일(금) 오후 7시30분 프라미스코회 본당(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독창, 합창, 합주(크로마하프, 핸드벨, 유스오케스트라)로 진행되며, 특별출연으로 가수 서수남 장로가 출연한다.

▲ 문의: (718) 279-1414

퀸즈장로교회, 성탄 축하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Love is Borne’이라는 주제로 성탄 축하 찬양제를 연다.

▲ 문의: 718-886-4040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성탄절 콘서트

센터빌한인장로교회(담임 차용호 목사)는 12월 15일(주일) 저녁 6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콘서트를 개최한다.

▲ 문의: 703-581-9235

시니어웰빙개발센터, 뉴욕미션콰이어 성탄음악회

시니어웰빙개발센터(대표 윤혜경 선교사)는 12월 15일(주일) 오후 5시 뉴욕그리스도교회에서 뉴욕미션콰이어 성탄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516-343-4703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성황리 열려

“구원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성탄캠티타 ‘노엘 노엘’을 찬양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21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코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개최됐다.

지휘자 양재원의 인사와 강주호 목사(뉴욕신광교회 담임)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는 성탄 찬양으로 진행되었고 3부에는 이상윤 작사, 이가영 작곡의 성탄절 캠티타 ‘노엘, 노엘’이 세계 초연으로 선보였다. 또한 소프라노 송은별, 정은지, 알토 박영경, 기타리스트 이교혁이 특별 찬양과 연주로 감동을 더했다.

이상윤 장로가 작사한 성탄 캠티타 ‘노엘, 노엘’은 아내의 투병과 이별이라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구성됐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작사자의 40번째 캠티타로 성경적 의미를 담은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린 작품이다. 작곡가 이가영은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성탄캠티타 ‘노엘, 노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3부 마지막 곡 ‘노엘, 노엘’을 찬양한 후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와 환호 속에 앵콜이 울려 퍼졌고, 이에 화답으로 ‘저 들 밖에 한밤중에’를 다 함께 찬양하며 어두운 밤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주회는 포인세티아를 연상시키는 1부와 2부에서 밝은 버건디 색의 의상으로 3부에서는 반짝 빛나는 초록색 의상으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매해 불우이웃을 돕고 선교기금을 전달하며, 올해는 △뉴욕코코 장애키보드서비스센터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스케나 농아선교(임금회 선교사) △신기만 집사 △한명철 집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20년 연주 근속 이재순, 최복순과 10년 연주 근속 송영임, 이옥연, 이정분, 장은옥, 정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모든 순서는 이상준 목사(베네셀선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고, 찬양의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분은 단장 이은숙 권사(917-648-1876)에게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3회기 주요 계획 및 목표 발표 후 사진 촬영 했다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3회기 주요 계획 및 목표 발표

“하나되게 하소서 (엡 4:3)”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는 11월 29일(금) 오전 11시 뉴욕교협회관에서 제53회기 주요 계획과 목표를 발표했다.

회장 한준희 목사는 “53회기 계획은 교계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존의 부족했던 연합 활동의 방향성을 보완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표어를 ‘하나되게 하소서(엡 4:3)’로 정하고 모든 활동을 하나됨을 향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3회기는 △선교로 하나되는 목사회 △가정 운동으로 하나되는 목사회 △소통으로 하나되는 세대간 목사회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번 회기 7대 주요 행사로는 △7개 교회 선정 뉴욕 목회자 초청 오찬 모임 △젊은 세대

목사와 기성세대 목사와의 포럼 △시니어 목사 단기 선교사 파송 △목회자 가족 위로의 밤 △목회자 부부 거북이 걷기 대회 △한국 성지 순례 여행 △각 교회 탐방 시리즈 유튜브 제작 등을 발표했다. 한편, 뉴욕 목사회는 “지난 2-3년간 사용하지 못했던 뉴욕교협회관 3층 사무실을 이번 회기에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53회기 임원은 회장 한준희 목사, 부회장 박희근 목사, 총무 박현영 목사, 부총무 한석진 목사, 서기 김인식 목사, 부서기 정금희 목사, 회계 정숙자 목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53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은 오는 12월 15일(주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홍현숙 기자)



찬양축제 후 신학교 담당자들과 합창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8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 개최

“할렐루야, 찬양할지이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38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가 11월 20일(수)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올해 찬양축제는 지휘 윤원상 교수, 반주 이승은 권사와 총 21명의 신학교 학우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합창과 주빌리 앙상블, 뉴욕팬플룻찬양단과 평신도음악원생들도 연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

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축제는 학감 정기태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기도 생희장 민준성 학우, 성경봉독 학생 부회장 정지원 학우, 주빌리 앙상블의 색소폰 찬양(호산나, 주님이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뉴욕 팬플룻 찬양 선교단 연주(주님 오실 때까지, 에베레셀 하나님), 말씀 학감 정기태 목사, 평신도 음악원 기타반 찬양(예수께로 가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증 이영만 학우, 신학교 찬양대 찬양(땅위에 사는 백성아, Let It Shine!, 나를 부르신 주), 헌금, 축도 학장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에서 학감 정기태 목사는 “할렐루야 찬양할지이다(시편 149:1)”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린다. 세상 사람들

은 자기 만족으로 노래하지만, 성도들은 구원을 주신 주님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기도응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찬양을 올리는 자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다”고 설교했다.

간증 순서에서 이영만 학우는 “신학교를 다니기 20년 전부터 계속된 오랜 암 투병과 간 이식을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으로 신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감사함을 얻게 되었고, 건강히 신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며 은혜를 나눴다.

모든 찬양 축제의 순서를 학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성국 목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공부하며 사역하는 학우들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른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를 섬기는 교수진들과 모든 동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도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개혁주의 신학교로서 1987년부터 미국 내 많은 한인 목회자들을 배출해 온 바 있다.

(김재상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36주년 음악회 출연진들이 함께하고 있다

뉴욕청소년센터, 36주년 음악회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12월 1일(주일) 뉴욕기독교교회(담임 고성민 목사)에서 36주년 기념 음악회를 은혜롭게 진행했다. 최호섭 목사(청소년센터 대표)의 기도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며 약 23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세 명의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HC Flash Mob, ‘Audience of One’이라는 ‘오로지 한 분의 관객,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AO1 댄스팀, Michael

Joonki Jung의 피아노 연주, NY Pillar Church Trio, Sonority Clarinet Ensemble, Promise Eshel Youth Gugak Mission 팀 등이 출연했다. 또한, 음악회에서는 지역 교회에서 봉사에 헌신한 우수 학생들에게 그레이트스 맨 연방하원의원,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의 상장이 수여됐다. 뉴욕기독교회는 참석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샌드위치와 스낵을 제공하며 연말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고성민 목사의 축도로 음악회를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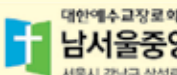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42차 해외성회(242nd Overseas Assembly)
미국(U.S.A) 뉴욕서광교회 주일부흥성회(최고선 목사)
미국(U.S.A) 사단법인 7천기도클럽 (이사장 권태일 목사, 1대 대표총재 김준곤 목사, 2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뉴욕 기도회, 동역 뉴욕 기독교방송 미국(U.S.A) 뉴저지 지역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섭 목사)
미국(U.S.A) 뉴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섭 목사) 부흥성회 및 Pastor's Seminar
미국(U.S.A)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재섭 목사) 부흥성회 및 사단법인 7천기도클럽 뉴저지 기도회

7(토) 오전 Special Blessing Event Class
9(월) 오전 텐트메이커선교회 (주)하나인 6층 (대표 남보서 목사)
9(월) 오후 오산리교회자살기독교기독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With부흥사협의회(대표총재 정사무엘 목사) 010-7733-9106
10(화) 오전 서울 새생명교회(변용성 목사) 010-2074-5398
10(화) 오후 인천 주사랑 열방교회(백사랑 목사) 010-2272-9119
10(화) 오후 서울대학교 동문 송년 MT 장소 :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 그라핀
12(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3층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박경근 목사) 010-2202-0691
13(금) 오전 서울 영동 밀레오호텔 3층 주최 : (사)地善協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3(금) 저녁 서울 풍성한 교회(양민호 목사) 010-3289-3991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제243차 해외성회 (243rd Overseas Assembly)
16(월)~17(화)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스데반,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日本政有認可
18(수) 저녁 일본(JAPAN) 東京(日韓文化交流協會 東京大會 Japan, Korea, China Exchange Association Conference in Tokyo
19(목) 낮,저녁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대종전도침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 김태식 선교사 및 일본선교 자원봉사단)
20(금) 저녁 일본(JAPAN) 日本 韓國 中國 문화교류협회 Naria 大會 및 특별성회

21(토) 오전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주 목사) 010-3065-7825
주최 : 작은자살기독교교회(대표회장 양우식 목사)
23(월) 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백사랑 목사) : (사)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철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23(월) 오후 기독교성신론 창간22주년기념예배 Blessing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20층
25(수)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성탄절 연합예배 010-8222-1992
26(목)~27(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890-5991
31(화) 자정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목사, 담임 여찬근목사)02-3411-9191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www.nsca.or.kr
www.nscakr.org
www.nscakr.org
www.nscakr.org

www.nscakr.org
www.nscakr.org
www.nscakr.org
www.nscakr.org



나성서울코랄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를 마치고 진정우 지휘자와 단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창단 50주년 기념 나성서울코랄 제75회 정기연주회

“합창이 주는 삶의 위로와 기쁨이 전해지기를...”

지난 1974년에 창단하여 올해 창단 50주년을 맞이한 나성서울코랄(단장 윤영석, 지휘 진정우 박사)은 제75회 정기연주회를 1일(주일) 오후 7시 LA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윤영석 단장은 “50년 전 아직 한 인사회가 생기지도 전에 박재훈 목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으로 세우신 나성서울코랄이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며 “합창이 주는 삶의 위로와 기쁨이 오늘 연주회에 참석

한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사랑의 열매’, ‘원해’,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계신 주’ 등 성가곡과 ‘얼굴’, ‘그리운 마음’ 등 가곡을 불렀다. 또한 바리톤 김경태와 소프라노 황혜경이 찬조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앵콜곡으로 부르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부에나 팍 더 소스에서 열렸다(사진 왼쪽 아래 타일 안은 사랑의 축제를 주관한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부 스텝과 이종희 단장(사진 우측)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0회 사랑의축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0회 사랑의축제’가 11월 23일(토), Buena Park에 위치한 The Source Mall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Arise and Shine, <이사야 60:1>)’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사랑의 축제를 주관한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부 김명숙 전도사는 “기쁨과 감사로 사랑의축제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황리에 열수 있게 되서 감사하다”며 “5년 만에 다시 열게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곳곳에 섬기는 손길들이 준비되어 있었

다. 사랑의 축제가 진행되는 데 알맞은 날씨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해주신 봉사자들과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교회사역을 감당하는 20여개의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500여명의 장애인 친구들,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은혜로운 예배와 맛있는 식사, 댄스 파티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박준호 기자〉

김병학 목사, AI 기술 활용 챗봇주석 완성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챗봇주석을 완성했다. 이 작업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24년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4일 오후 1시에 ‘챗봇 성경주석 완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황진기 박사(에반젤리교 신학 교수)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본문으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목사의 챗봇주석이 이러한 사역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종희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는 “김 목사의 오랜 연구와 목회적 열정이 담긴 결실로서, 이 주석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로 챗봇 성경주석을 완성한 김병학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지혜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며, “처



챗봇 성경주석 완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황진기 박사, 김병학 목사, 이종희 목사가 기념촬영했다

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지만 지침이 없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출애굽기를 만들 때는 창세기의 어설품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우선 전체를 완성한 후 계속해서 수정 작업과 AI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조만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며, 1월 30일에는 KAPC 교단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 중이다. 자세한 것은 (213)392-040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김병학 목사〉



기독교장애학 수료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성진 총장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월드미션대학교에 기독교장애학 개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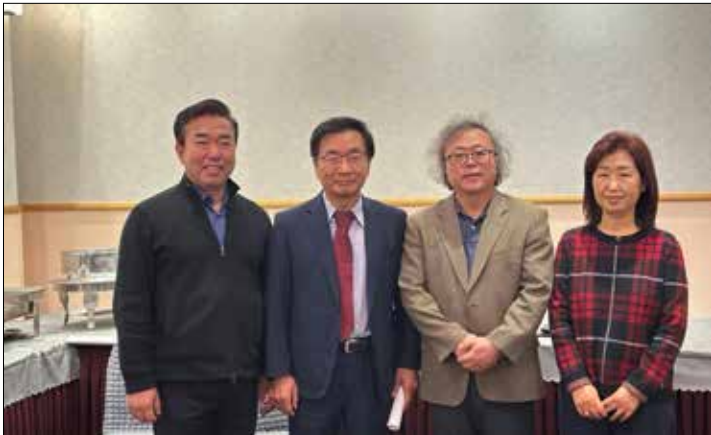
“장애인이 교회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에 기독교 장애학 수료과정이 개설된다. 2025년 봄학기부터 한 과목씩 개설되어 과목당 8주 분의 강의가 제공되고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본 과정에 관심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대상이며 4과목을 모두 마쳤을 경우 수료증(Certificate)이 발급되며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진학시 3학점이 인정된다.

지난 11월 20일(수) 오전 11시 이 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성진 총장은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여러 비학위과정과 자격증 과정이 마련을 했는데 그중에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하는 기독교 장애학 수료과정을 통해 교민사회와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는 “이번 개설되는 장애학 수료과정은 다양한 신앙공동체가 장애와 관련된 신학적,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장애인이 교회

와 사회에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장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를 배우며 장애여부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과 관점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우선 2025년 봄학기에는 ‘장애신학과 교회’란 주제로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장애학의 이해’란 주제로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장애학과)가 강의를 맡는다. 또 가을학기에는 ‘장애인 사역과 현장 연구’란 주제로 이종희 교수(남가주밀알선교단장)와 이현아 교수(월드미션사회복지학과), 이준혁, 안윤경 목사(나성영락교회)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수료증 과정 등록금은 1과목(1학점)당 150달러이며 교회나 기관에서 등록할 경우는 과목당 100달러다. ▲ 문의: (213)388-1000, hyunalee@wmu.edu(이현아 교수)

〈박준호 기자〉



라크마 2024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에 참석한 라크마 스텝들(사진 왼쪽 두번째가 최승호 단장)

라크마 2024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 열려

“수준 높은 연주와 장학생들의 감동스토리 함께 나눌 것”

라크마(단장 최승호 박사, 뮤직디렉터 윤임상 목사)가 주최하는 2024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가 8일(주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열린다. 행사에 앞서 2일 오전 11시 30분 용수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를 소개했다. 윤임상 목사는 “라크마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크리스마스 음악을 나누고 함께 장학생 연주회를 가지고 있으며 매 해 3-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최승호 단장은 “라크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단지 음악적인 탁월성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며 열심히 음악에 정진하고 있는 것을 우선시 한다. 올 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3명의 장학생들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승호 단장은 “크리스마스의 계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수준 높은 연주와 역경을 딛고 올라선 장학생들의 감동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라크마 부지휘자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에스더 김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며 테너 오정록과 소프라노 니콜 맨슨이 출연한다. 또한 마에스트로 윤임

상 뮤직디렉터의 지휘에 맞춰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랄이 모차르트의 C단조 코랄인 ‘글로리아’를 연주하며 소프라노 김혜준, 김시연, 양유진, 테너 오유영이 출연한다. 2부 순서는 장학생 연주회로 진행되며 연주회 후에는 장학생 수여식을 갖게 된다. 연주회는 월드미션대학교 지휘와 학생들의 지휘에 맞춰 장학생이 함께 연주하게 된다. 1등(장학금 \$3,000)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장유라는 양성진의 지휘로 2등(장학금 \$2,000)을 차지한 소프라노 정예린은 박보미의 지휘로, 3등(장학금 \$1,000)을 차지한 소프라노 김시연은 윤임상 목사의 지휘에 맞춰 각각 공연한다. 영예의 1등을 수상하게 된 장유라 학생은 서울시립대에서 학사학위를 New School of Mannes School of Music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등 수상자인 소프라노 에린 정은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재학중이다. 3등을 차지한 소프라노 김시연은 이화여대에서 학사,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 문의: (213)924-7563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새생명선교회 2025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
새생명선교회(대표 김은형)는 고 박희민 목사 소전 2주기를 기념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및 영적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원 금액은 목회자 1명당 각 \$1,500이며 총선발인원은 50명이다. 지원자격은 출석교인 25-70명 규모의 담임목사로 세미나 참석자(세미나 불참자는 선발제외)이다. 신청은 12월20일(금)까지 newlifemissionfdn.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2025년 1월6일 newlifemissionfdn.org에서 공지한다. 세미나는 2025년 4월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점심제공)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미주복음방송 '나눔 On라디오 On 캠페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2024년 연말을 맞아, '나눔 On라디오 O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 On 라디오 On 캠페인'은 미주복음방송 AM1190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라디오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매해 진행되며 30불 상당의 라디오를 15불에 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5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v7qkZyeZgnUjBrwX8

▲ 문의: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주안예교회 사역자 청빙

주안예교회(담임 크리스 이 목사)에서 풀타임 및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부문은 장년부, 교육부, EM공동체 목사 혹은 전도사(풀타임/파트타임), 디자인 간사(파트타임)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졸업증명서, 추천서 3부, 안수 증명서 및 설교영상(목사/전도사), 포트폴리오(디자인)를 이메일(icc.office3@gmail.com)로 보내면 된다.

▲ 문의: (818)363-5887

OC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는 2024년 12월 송년 431차 조찬기도회를 7일(토) 오전 7시30분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연다. 이번 조찬기도회에서는 조현영 목사(큰빛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 문의: ockca1@gmail.com

송인 시인 출판 기념회

송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Amazon Publish '얼음 조각가' 출판기념회가 7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재연 목사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갖는다.

▲ 문의: (213)434-5458, (213)434-9041

2024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송년모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회장 수잔 정 박사)는 2024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기 위해 “연세 동문들과 가족들을 위한 송년파티”를 7일(토), 오후 4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1509 S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에서 열린다.

▲ 문의: 권기숙 (818)497-6100, 박민희 (714)523-5768

목회와 선교를 위한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강의 4기 모집

목회와 선교를 위한 YouTube 영상 및 이미지 생성형 AI 도구 활용 강의가 12월 9일(월) 오후 7시 부에나파크와 14일(토) 오전 10시 에너하임에서 8주 과정으로 열린다. 이에 대한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YouTube 다국어 Subtitle 및 AI 활용한 다국어 영상 제작 및 교회 및 사역에 사용되는 YouTube 이미지, 배너, 포스터, 후보, 뉴스레터, 광고, 교육 자료, PPT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강사 제임스 구 교수는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IT,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 문의: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 (ICMM Center) (문자가능)



성광회 11월 예배를 마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주성결교 은퇴목회자 모임 '성광회' 11월 정기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될 것”

미주성결교회 은퇴목회자들의 모임인 남가주성광회(회장 최치규 목사)는 지난 11월19일(화) 오전11시 나성성결교회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성광회는 미주성결교회에 최치규 목사의 사회, 최승은 목사의 기도 후에 구자민 목사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송증복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순서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초청 교회인 나성성결교회와 미주성결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안보와 세계평

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이어 신원철 목사의 광고, 노재룡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광회는 미주성결교회에 소속돼 활동하는 은퇴목회자들의 모임으로, 매월 순회예배와 남가주의 성결교회 3개 지방회가 후원해 은퇴목사위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후진들과 성결교회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인 중보사역을 펼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평신도 운동의 중추” 예정통합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한 세기

3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미국북장로회 파송으로 한국 안동선교부에서 사역한 앤더슨(1890~1960·한국명 안대선) 선교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면려 운동을 한국에 접목했다. 면려(勉勵·Chirstian Endeavor)는 ‘힘써 일한다’는 의미로 청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1921년 경북지역에서 태동한 기독교면려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4년 12월 2~5일 서울 피어선성경학원에서 조선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금주·금연, 경

건·절제 운동 등에 앞장섰다. 기독교면려회의 정신을 잇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길 목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정성철 장로)가 3일 경북 안동교회(김승학 목사)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정통합 면려회는 예정합동(총회장 김중혁 목사)과 분열 후 평신도회(1963년) 남전도회(1977년) 남선교회(1979년) 등 세 차례 이름을 바꾸며 활동해왔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활동은 평신도 운동의 역사와 같다. 면

려회가 시작한 금주·금연운동은 몰산장려·야학 운동으로 확산했으며 사치품 제한, 국산품 애용, 저축 장려 등 범사회운동도 추진됐다. 현재는 전국 71개 지회가 선교·교육·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1970년 시작돼 매월 진행되는 수도권 조찬기도회는 지난달 586회를 맞았으며 연합회가 세운 평신도교육대학원에서는 지금까지 평신도 지도자 2400여명이 배출됐다. 이날 진행된 감사예배에서는 김영길 총회장이 설교했으며 김승학 목사의 강의, 기념예식, 음악회 등이 함께 열렸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현복 작가가 만든 조형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연합회의 사역이 복음으로 인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성철 회장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커피값을 아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커피 한 잔의 선교’를 시작하는 등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경책으로 제작했다. 백 총장은 봉헌식을 통해 “교직원이 성경을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 기록한 필사성경이 모여 지금 웅장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학교 구성원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거대한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개개인은 모두 조금씩 부족하지만, 우리 전 구성원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해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이뤄주실 것을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랜 과도를 거쳐 학교가 정상화되고 새 이사회와 함께 학교도 재도약을 시작했다”며 “오늘 하나님께 봉헌한 필사성경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에 설립된 한세대는 백 총장을 중심으로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 ‘소어 하이 리치 하이어(Soar High Reach Higher·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영성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LGBTQ+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조사 결과는 포괄적 성교육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연과 저서를 통해 문 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는 5000여개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결과물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는 시민단체 ‘인권수호번호사회와 문화시민연대’를 설립해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사역 목회 아르바이트까지 ‘삼중고’ 빠진 신학생

영적 쉽과 위로, 영적 소명과 정체성 재확인

신학교 영성 집회가 학업 목회 아르바이트로 지친 신학생들의 영적 쉽과 사역의 훈련장이 되고 있다. 서울 전역 폭설이 내린 지난달 28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감신대 백주년 기념관으로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는 낮 동안 녹지 못한 눈이 쌓여있었다. 추위를 뚫고 이날 감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단체 ‘하기모(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모임)’는 ‘제5회 시내산기도회’를 진행했다. “(감신대)신학생들 가운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던 하기모 리더 유성엽(26) 전도사의 말이 무색하게 기도회 공간은 기도하는 이들의 박수와 방언 소리로 가득 찼다. 하기모는 2년 전 신대원 학생들로 시작해 현재는 공식 단체로 활동하며 점

심기도회 토요기도회를 비롯해 학기마다 시내산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유 전도사는 “신학생은 신앙이 견고하고 총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며 방황하고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한다”며 “영적 집회를 통해 영적 갈급함을 재충전하는 은혜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 신학교 영성 집회는 ‘사역자 매너리즘’을 해소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같은 시간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는 ‘제6회 장신한마음 기도의 밤’이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 참여한 전정민(31) 전도사는 “사역하다 보면 예배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부족해진다”며 “사역의 타성에 젖기 쉬운 신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을 재확

인하는 시간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저녁 집회뿐 아니라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정오에 진행되는 기도회로 일상의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총신대 음악선교단 해세드는 찬양 집회를 드렸다. 해세드는 이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라는 주제로 집회를 이어갔다. 대표 장소연(21)씨는 “찬양 사역을 다니다 보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집회 찬양을 통해 신학생들이 사역자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고 했다. 신학생 중심으로 구성되는 신학교 집회가 사역 현장을 앞둔 학생들의 훈련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백석대 신학대학원은 지난 6월 ‘거룩한 방파제 대회를 계기로 학생 중심의 동아리 연합체를 구성했다. 이 중 전도 동아리 다섯 개가 협력해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중 전도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열고 수업 후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리연합 회장 정재욱(41) 전도사는 “이러한 활동이 신학생들에게 학문적 배움과 함께 사역 현장에서 필수적인 영적 성숙, 공동체성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한세대,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한 땀씩” ...

이 대학교의 특별한 종강 예배, 신구약 성경 66권 합본 봉헌

“매년 두 번씩 열리는 종강 예배지만 이번 예배는 조금 특별해요. 교직원들이 직접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필사한 성경 합본을 봉헌할 예정이기 때문 이죠.” 3일 종강 예배에 앞서 만난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은 학교 본관 총장실에서 이렇게 말하며 자랑스레 미소를 지었다. 3년여간의 ‘리더십 공백’을 뚫고 지난 2월 신임 총장으로 부임한 그는 지난 4월 학교 구성원의 영성 회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사비를 들여 성경 필사

의 기회를 마련했다. 한세대는 학교 HMG홀에서 ‘2024학년도 2학기 종강 예배’를 열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세대학교 교직원 이 함께 쓴 필사성경 봉헌식’을 진행했다. 교직원이 필사자로 나서서 성경 합본을 봉헌하는 것은 개교 71년 이래 최초다. 이날 봉헌된 필사성경은 백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79명이 함께 필사자로 동참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7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성경을 필사한 것을 모아 한 권의



“성폭력 사건 10배 이상 급증...”

조기성애화 부추긴 교육 부작용”

포괄적 성교육이 조기성애화(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와 사회적 성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의도침례교회(국명호 목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교회 교육관 글로리아홀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이는 한국·영국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용준 법학박사다. 책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인 그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포괄적 성교육과 딥페이크 성범죄 간의 연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강연에서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성교육 도입의 문제점을 꼬집은 그는 서울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신체적

폭행은 감소했지만 성폭력 사건은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조기성애화를 부추긴 교육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국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시행 후 아동 간 성적 학대 비율이 급증했고 성전환 기술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수가 8년 동안 44배 증가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별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이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별을 강조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개최

약 30억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박스’ 마련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서울시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CJ제일제당,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3일 ‘2024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개최했다. 굿피플 이사장이기도 한 이영훈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하 영상을 통해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빈곤 재난 질병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사람, ‘굿피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조금 더 좋게 바뀔 것”이라며 “굿피플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각종 생필품과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를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굿피플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굿피플은 그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31만 여명에게 296억원 상당의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전달했다. 올해 행사를 위해 마련된 사랑의 희망박스는 2만5000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억8000만원에 달한다.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CJ제일제당이 지원한



한가협, 다음세대 HIV예방교육 제안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 필요

지난해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자 10명 중 6명이 20~30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은 HIV 10대 감염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교계에서는 이런 문제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한국가족보건협의회(한가협·대표 김지연)에 따르면 질

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감염인 중 20~30대가 전체 6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인 김지연 대표는 “10대 신규 감염자가 12명으로 적은 수가 집계됐지만 HIV 감염 후 에이즈로 발현되기까지 잠복기를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은 10대 HIV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HIV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과도하고 편향된 성교육이 어린 나이에 성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른바 ‘조기 성애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교계에서 지속해서 ‘성경적 성교육’ 시행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 유다. 한가협은 그동안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해마다 ‘디셈버 퍼스트(December First·사진)’라는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펼쳐왔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첫 해외 캠페인을 펼치며 현지 한인 다음세대에게 효과적인 에이즈예방법과 바른 성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 등을 안내했다.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행한 대로 갚는 진리(삿9:22-45) 찬379장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겔 사람의 불의의 연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악인을 보내 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3년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악을 너무 좋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이 심판 중에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 더 악한 지도자, 가알을 일으켜 심판하

화 세밀한 심판의 손 (삿9:46-57) 찬161장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전쟁이나 쿠데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작은 일로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 심판의 손은 치밀하게 짜여져 있음을 봅니다. 일반은총 속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도 너무 자상하지만 특별 은총 속에서의 구원과 심판은 더 자상하십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았고 정탐꾼들의 불신앙 보고를 듣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한마디 말로 광

수 우상을 멀리하자(삿10:1-18) 찬102장

아비멜렉 통치의 공백을 두 사사가 메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지도자가 죽어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친히 새 사사들을 세우심으로 위기를 타개하셨습니다.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이 일어나 23년, 22년간을 각각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 시대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신

목 하나님 일꾼의 자격 (삿11:1-11) 찬357장

고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는 신실한 사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일꾼의 자격입니까? 첫째,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자여야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잡류들과 함께 하는 나그네인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악한 자리라 할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둘째,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손

금 영적 지도력 (삿11:12-28) 찬354장

임다의 영적 지도력은 어떠했나요? 첫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적 안목을 가질 때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둘째, 하나님 주권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암몬 왕에게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 임다의 헌신 (삿11:29-40) 찬350장

외교로도 통하지 않자 임다는 암몬을 공격하여 이심 성읍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것은 임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성령은 헌신케 하시는 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신 증거로 그의 신을 부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임다는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하여 싸우게 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

게 했습니다. 그가 모반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역시 불의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반복된 자리다툼으로 분별이 힘든 혼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악 간의 심판받을 자처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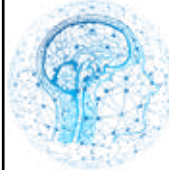
야에서 모두 죽었고 헤롯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마음의 교만한 태도로 그 자리에서 총이 먹어 죽은 일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 회개하여 그의 심판을 벗어나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작은 일이라 하여 불성실하지 말고 악하다 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 그리고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우상백화점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우상이 번영과 부요와 전쟁 승리의 욕심을 표현하는 우상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물질만능사상, 인본주의는 현대판 바알들입니다. 특히 복음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물질주의, 기복주의, 기적주의는 교회 내에 자리 잡은 교묘한 우상들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신자가 됩시다.

아래 있음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여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말을 다 하나님께 고할 정도로 진실했습니다. 참된 기도만이 원수를 이깁니다. 임다의 사사됨에 이 세 요소가 분명했던 것처럼 복음일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 가정은 이 요소를 분명히 하여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집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셋째, 심판대 앞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때나 암몬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으로 일했습니다. 암몬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담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과거의 거울 속에서 얻은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습니다. 전쟁하기 전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의 무남독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를 반제로 드린 것은 평생을 하나님의 제사 일에 종사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믿음의 용기가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희생적 헌신으로 가장 큰 원수, 내 속의 육체 소욕을 죽이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6)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5편)

7. Image-to-Image (ITI) AI 기술-
(전편 계속)

Image-to-Image (ITI) AI 기술을 활용하면 이미지에 색을 입히거나 색상 구성을 조정하는 컬러화 및 색상 조정(Colorization / Color Adjustment)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흑백 사진이나 고대 성서 삽화에 색을 입혀 이미지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 증강(Super-Resolution / Detail Enhancement) 기능을 통해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업스케일하거나 작은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I 기술을 활용해 설교나 성경이야기의 시각 자료를 더 생동감 있고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용으로 제작된 예수님의 생애 장면을 어린 이용 만화 스타일로 변환하거나, 고대 문서 스타일로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 홍보 포스터, 전도지 등 다양한 스타일과 색감으로 제작하여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고 교회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 사진을 고급스럽게 편집하거나 교회의 분위기에 맞게 이미지 스타일을 변환하여 교회의 고유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ITI 관련 도구로 Adobe Photoshop AI 는 Photoshop의 AI 기반 ITI 기능으로 스타일 변환, 이미지 복원, 배경 제거 등의 다양한 변환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DeepArt는 사진에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적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줌으로 설교 혹은 교육에 활용하는 이미지에 예술적 시각 요소를 더해 줍니다. DALL-E는 OpenAI의 이미지 생성 AI 도구로, 이미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목회 프로젝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Prisma는 사진을 다양한 미술 스타일로 변환해 주는 앱으로, 소셜 미디어 홍보 이미지나 포스터 제작에 적합합니다. MyHeritage AI 는 고전적이고 흑백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컬러로 변경해 줌

로 교회의 역사적 자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또한 AI 기반의 그래픽 디자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Microsoft Designer는 사용자가 템플릿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쉽게 활용하여 슬라이드, 포스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발표 자료 등을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폰트와 색상, 레이아웃 등을 추천해주어 시각 자료 제작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세련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Playground Designer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포스터, 로고, 웹 구성 요소 등을 수정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 행사 자료를 돋보이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Google FX와 Image FX는 Google에서 개발된 이미지 편집 및 효과 도구들로 이미지 편집, 필터 적용, 보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Google FX는 이미지의 색상, 대비, 노출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며, Image FX는 특수 효과나 필터를 통해 이미지를 더욱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와 비슷한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으로 PosterMyWall 과 Canva 가 있습니다. PosterMyWall은 포스터, 소셜 미디어 그래픽, 동영상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무료와 유료 템플릿이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 템플릿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색상 등을 간단하게 수정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미지와 동영상 클립 아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Canva는 디자인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용자들이 손쉽게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소셜 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로고, 초대장, 브로슈어, 비디오 편집 기능도 지원하며 무료 버전에서도 다양한 템플릿과 디자인 기능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추가 그래픽, 사진, 폰트 등 고급 자원을 제공하여 더 세련된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도와 줍니다. 특별히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영리 단체인 경우 프리미엄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뉴욕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멕시코 노갈레스 단기선교 후기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는 여호와”

남가주든단교회(담임 김홍철목사)는 2024년 가을 단기선교를 멕시코 노갈레스로 다녀왔다. LA에서 10번 도로를 타고 9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곳이 미국 노갈레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국 노갈레스와 멕시코 노갈레스가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오래전 이주한 이슬교사 부부가 목화와 선교에 올인 하고 있다. 미국 쪽 노갈레스에서는 ‘노갈레스 한인교회’

남가주든단교회에서는 매년 여름 7월 첫주에 멕시코 노갈레스 지역과 로스모프스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온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슬 선교사와 동역을 이룬지 7년째 되었다. 처음엔 노갈레스 지역에 양로원, 고아원, 급식소를 돕는 것으로 시작해 진행해오다 팬데믹 직후부터 멕시코 로스모프스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노갈레스 지역은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한 터라 이번에 방문기로 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단순한 방문으로 계획했다고 한다. 어른 5-6명이 가서 인사하고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단기선교 소식을 들은 종교대학생 중 지난 7월 로스모프스로 선교를 다녀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또다시 가을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고 어른들도 선교로 방향을 바꾸고 준비기도회를 들 어갔다. 그렇게 두 달여를 준비한 끝에 지난 추수감사주일인 24일 예배를 마치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20명의 단원들이 멕시코를 향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9시간도 긴데, 거기에 도로 공사가 있어 한 시간이나 정지상태로 있다 보니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피곤한 상태였지만 아침 7시가 되자 모두들 기상. 아침예배를 드린 뒤 첫날 사역을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 노갈레스 임마누엘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자 단원들은 샌드위치 200개를 만들어 팀을 나눈 후 흠리스들을 향한 노방전도에 나섰다. 물과 샌드위치, 사영리 설명을 위한 쉼새미,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다. 오후 2시가 되어 다시 임마누엘 교회로 돌아온 단원들은,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와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이번엔 근처 병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이 병원은 그곳에서 제일 크고, 하나 밖에 없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의료진



은 적고, 주변에서 몰려드는 환자는 많아 빨리 빨리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곳이었다. 병원에 가보니 병원문은 닫힌 채로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고, 병원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를 받으려고 와서 대기 하는 사람, 임원 환자를 면회 온 보호자들... 이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리다 그날 순서가 안 되면 병원근처에서 노숙을 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병원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짐보따리도 가지고 있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서 잔다고 한다. 병원 앞에는 낡은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런 상황이니 우리가 건네주는 샌드위치와 물도 감사히 받을 뿐만 아니라, “저 병원 안에 아들이 임원해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말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 전도의 황금 어장 같이 느껴졌다.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동안 학생들은, 임마누엘 교회 방과 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어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끝날 줄을 몰랐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서둘러 양로원과 경성원이 있는 MASQUE VENCEDORES(원장 레온소 목사)로 향했다. 그날 만든 샌드위치는 300개. 그리고 한 단원이

를, 멕시코 노갈레스에서는 ‘노갈레스 임마누엘교회’(현자인)를 섬기며 노갈레스 지역뿐 아니라 그곳에서 또 8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LOS MOCHIS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남가주든단교회는 이슬선교사와 동역하며 그곳을 돕고 있는 가운데, 금번 단기선교를 노갈레스 지역에 있는 경성원과 양로원(MASQUE VENCEDORES)을 찾았다. 기자는 이번 선교에 동행하며 그곳 상황을 살펴보았다.

가지고 온 찜쌀 도넛 480개는 양로원에서 직접 튀겨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샌드위치와 콜라, 도넛, 과자, 선물을 안겨주며 기쁨을 나눴다. 그러나 단원들은 누군가를 찾기에 바빴다. 보아야 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그 사이에 천국으로 떠나신 것. 그리고 5년 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다. 당노로 한쪽 다리가 없는 이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 다행히 휠체어를 살뜰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에서 기증을 받아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에 그나마 감사했다. 그곳에 있는 130여명 중 50%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도 들었다. 예배 후 선교위원장 최한경 장로님과 한팀은 남자들의 머리를, 다른 한팀은 여자들 머리를,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메니큐어를 발라 주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준비한 독특한 프로그램이었다.

10명의 학생팀은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성탄트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과일 나무 10그루와 예쁜 꽃들을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자세히 적어 그분들에게 전달했다. 또 한편에서는 빙고 게임을 진행했다. 물론 번호가 맞아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맘이 싸했다. 스페니쉬가 완벽하지 못한 학생들은 종이에 써온 글을 보가며 게임을 이끌어갔다. 플로라이드 사진기로 사진도 찍어 걸어 주었다. 비록, 밤새도 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그들이지만 그 순간은 얼마나 해맑던지....

하루해가 너무 짧았다. 아니, 3박4일이 너무 짧았다. 머리를 자르겠다고 줄을 섰던 이들을 둘러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안고 서둘러 돌아서야 했다.

선교!! 주님의 지상명령. 큰 교회는 큰 규모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해 학생으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이어간다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듯싶다. 오랜만에 선교현장을 보고 오는 기자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야릇함을 금할 수 없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볍게 생각한 선교지방문을 하나님은 온전한 단기선교로 바꾸어 주심에 송구함과 감사함이 넘쳤다.

〈이성자 기자〉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남부 티둥 종족

▲ 인구
약 27,000명

▲ 종교
민속 종교 73%, 이슬람교 20%, 복음화율 7%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인도네시아 별관간 지역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목민이다. 화전 농사를 짓고 이웃과 서로 도와 일한다. 신생아를 해먹에 넣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밀가루를 뿌리는 풍습이 있다. 이슬람교를 따르지 만 오랜 정령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외부인에게 친절하지만, 복음에는 닫혀 있다.

▲ 기도제목

1.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 주시고 성경 번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2. 유목 생활로 인해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3. 복음에 담긴 마음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714) 46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아원 (점소-KDC, 킴벌리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imint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 영아원: 오전 9:00, 11:00 일요일학교: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nw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26-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9-1827 / www.wscs.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1주)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 (213) 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승송 목사 (LA복음연합관리교회회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아사역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일일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piscam.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게시판: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 446-6200, www.grace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ccsla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rsstone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 배: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오 예 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30-5500, www.torrencecgc.org 1966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목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일 3:30(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 에세이

12월의 마지막 달력 앞에서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2월 1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달력의 마지막 장을 펼쳐 놓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느낌에 낯짜 하나하나가 더없이 소중한 애춧합니다. 장자의 <지복유>편에 나오는 "인생여백구과극"(人生如白駒過)이라는 말처럼, 인생이란 문틈으로 흰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모두가 인생이 짧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마치 내일이 영원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력 한 장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손에 잡히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2월 달력은 삶을 가르쳐 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고, 가장 좋아하는 달

력도 12월입니다. 저는 모든 잎새가 떨어지고 난 숲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비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참 좋습니다. 겨울은 한 해를 마

까? 누구에게나 봄날의 파릇함, 여름날의 무성함, 가을날의 성숙함을 지나 겨울의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이 다

을 붙잡는 것입니다. 봄꽃의 향기, 여름의 찬란함,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12월의 달력 앞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한 달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루고 싶었던 소원

어나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원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일독하려 했다면 지금까지도 펼쳐 읽어 보십시오. 기도의 삶을 계획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조금 더 삶을 드리기를 기도했다면 지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그려 보십시오.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달은 짧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은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남은 시간을 빛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을 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preachchrist@kcpc.org



무리하는 시간이지만,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에 있었습니

다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소중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최고의 선물로 여길 때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감격이 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감사와 뿌듯함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소원은 많은 세월이 걸려야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선한 기운을 나눠주는 사람”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어제 한국에 있는 제자로부터 오랜만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의 부부에 대한 안부를 묻고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

었습니다.

"....두 분을 뵈고 싶습니다. 유쾌하신 목사님, 따뜻한신 사모님. 만나 뵈면 선한 기운을 나눠주셔서 매일 뵈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글을 소개하려면 '답살' 소리를 들을까 마음이 쓰이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이 생각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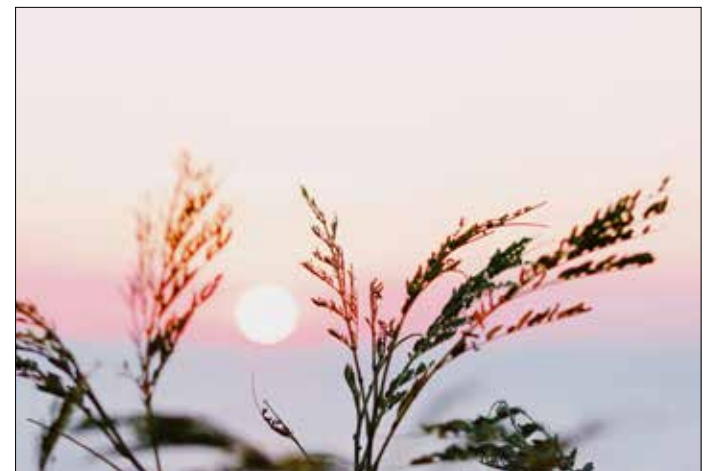
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빌 1:3, 4)

뭐 이 말씀을 복잡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받으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감사가 떠올랐다는 말이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빌립보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내준 간단한 카톡 한마디 때문에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 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후 3:1-3)."



여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여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중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